朝鮮日報
夕刊 九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一時的首都退去는 降伏을不意味!

遷都後第一次閣議서叛軍鎭壓을決意

政府의悲壯한콤뮤니케

(카바레로首相)

【발렌시아七日發同盟】카바레로首相以下 人民戰線政府閣僚는 七日 自動車로 마드리드市로부터 발렌시아市에 到着하야 熱狂的市民의 「西班牙共和國萬歲」의 歡呼裡에 假本據벼니카르로密에入하엿다 政府는 카바레로首相司會下에 遷都第一次閣議를開催하고 今後對策을 協議한結果 全國民에對하야 遷都事情을 闡明하고다음의 悲壯한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政府는 勝敗를 決定할 重大時期에當하야 英雄的市民을마드리드市에 殘在케한것은 참아 하지못할일이나 軍事的事由及國際秩序等을 考慮한 結果 不得已一時首都를 退出치안코는 아니되엿다 그러나 退去는 首都의 放棄乃至政府軍의 降伏을 意味한것은 아니다 政府는 據히 特別委員會를 組織하고 全國의 共和制支持勢力을 糾合하야 마드리드擁護와 叛軍鎭壓에 萬全의 處置를 講究할覺悟이다

카바레로首相離京?

【세빌리야八日發同盟】叛軍放送에依하면 카바레로首相은 蘇聯大使로-젠베륵氏를伴하야 六日 이미飛行機로 마드리드市를脫出 알리칸레港에 到着하엿다 다시出發에압서外交團에對하야 首都撤收를要請하엿다고傳한다

首都陷落說은虛報

遷都後政府軍依然 叛軍陣地猛攻擊

人民戰線義勇軍新銳部隊도進軍

就中砲兵活動이猛烈

【마드리드八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은 政府離京後도 依然 首都防衛의決意를 버리지안코 八日曉以來 미아하將軍指揮下에果敢한 反擊을開始 就中砲兵은對砲山砲의砲列을펴고 叛軍陣地를 猛攻擊하고 空軍도 또한猛烈히 叛軍에爆擊을 開始하엿다 一方人民戰線派義勇軍新銳部隊는 「이러내숨날」을高唱하며 南部카라바레르戰線에進擊하엿다 首都市內의店舖는 모다문을닷치고 戰戰兢兢狀態이다

【지브랄타르七日發同盟】하카放送局은七日午後마드리드市의陷落을放送하엿는데 右放送이全然虛報이엿다는것이 判明되엿다 부르고스叛軍國防委員會員 데리야노將軍은 放送局에 罰金刑을處하엿다 데리야노將軍은 同夜自身이마이크에서서 戰爭의眞相에關한 左와如한放送을하엿다 革命軍은 마드리드郊外인 마사마레스河州邊에 到着하엿다 同河에 架設한橋를 占據하엿는데 此는非公式의것이다 七日叛軍行動의 目的은마드리드全市를 占據함에잇지안코 市의 中心에 向하야 前進할수잇는作戰基地의 二、三을 確保함에잇다한다

首都撤收에際하야 政府防衛委員會組織

【마드리드七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七日首都撤收에當하야 政府의代位機關으로서 미아하將軍을首腦에 防衛委員會를 組織하엿다 防衛委員會는 八部로되여 左翼諸派代表二名으로써 各部를 組織하엿다

陸軍部 共產黨代表一名
司法部 社會黨代表二名
生產部 國家勞働聯盟(無政府主義)代表二名
交通部 左翼共和黨代表二名
食料部 勞働總同盟(社會主義系)代表一名
財政部 共和黨代表一名
情報部 青年黨(無政府主義)代表一名

新政府設立으로 左右派對立激化

外務當局推移重視

【東京電話同盟】마드리드陷落에依하야 叛軍은 西班牙政權을掌握하고 이제야新政府成立을 各國에 通告하고 政府組織에 進出할 模樣인데 信憑할側으로부터 情報에依하면 카바레로氏를 首班으로한 第四次人民戰線內閣은 마드리드市로부터 발렌시아市에 政府를 移轉하고 카탈로니아自治州를 中心으로依然政權을 維持하여갈方針인模樣임으로 西班牙內亂은 急速히는終熄치안코 此를 圍繞코 歐羅巴左右兩翼의 對立은 더욱激化할것으로 觀測되다 即발렌시아市에 百名의 蘇聯人이同地方에잇서서 赤化工作에 努力하고 잇스므로 카탈로니아政府는 純然한 共產黨의 赤化에 活躍한 오푸쉬코氏가 頭領으로서 駐在하고 凡千六百名의 蘇聯邦元駐波公使로서 波蘭의 赤化에 活躍한 ... 政府의 實權을明白히하야 蘇聯과의 提携를 强化하는것은 疑問의餘地가업다 一方蘇聯政府로서는 政府側支援의 態度에 出할 模樣이다 此에對하야 伊太利政府로서는 蘇聯勢力의 地中海進出에依하야 地中海의制海權이 脅威될은 國家的生存에도 重大한 影響을招來하게될것으로 赤化의共同防衛의 前提로서 獨逸과提携하야 新政府를支援하고 카탈로니아赤化政府의 撲滅을講究할것이 豫想되고잇는데 佛國에서도 西班牙人民戰線派인 現內閣의地位도 危殆에瀕하야 近近 右派內閣의 出現이 豫想되고잇는데 佛國에서는 最近 佛國蘇聯接近을 危險視하고 佛、蘇相互援助條約廢棄論도 强硬히主張되고잇스므로 新內閣이 實現되면 佛、蘇關係는 急速히 冷却하야 同條約의廢棄가 實現될것이라고 觀測되는데 赤化共同防衛를 提唱하고잇는 日本外務當局으로서는 歐洲의 新情勢에對하야 重大關心을 갓고 그進行을 注視하고잇다

防衛委員長聲明

【마드리드七日發同盟】防衛委員長미아하將軍은 委員會八部의構成終了後 七日午後正式으로左와如한聲明을發表하엿다 政府는 防衛委員會를組織하고 余를委員長에任命하야 首都死守를 委託하엿다 委員會는如何한犧牲을拂하더라도 叛軍과抗爭할方針이다

撤收部 勞働組合代表二名
此外 政府는 포자스將軍을·主班으로한 作戰本部를 組織하고 포자스將軍은 七日本部를首都東方八十粁의라랑흥市에設置하엿다 포자스將軍은 라랑흥市에作戰本部를設置하엿는데 將軍自身은 마드리드市에 殘在하야 委員會와連絡을取할것으로傳한다

首都治安回復後 新政府와外交開始

歐洲問題不關與主義로積極的態度는回避

外務當局의對西方針

【東京電話同盟】西班牙內亂은反政府軍의 마드리드入城으로 大勢가 決定되기에이르럿스므로反政府軍은 即時各國政府에 對하야 新政府成立을 報告하고 外交代表派遣의 措置를取한 模樣인데 各國이此에 對하야 如何한 態度에나갈것인가는 歐洲各國의 左右兩翼對立을 明確히明示하게될으로 興味를가지게되엿다 그러나 日本外務當局에 達한報告에依하면 隣國의 葡萄牙가爲先第一로 反政府軍을 新政府로서 承認하고 獨逸、伊太利가 此에 繼續하야新政府를承認하고外交使節交換을行할것으로推測되고잇다

日本外務當局은 歐洲問題不關與의根本方針으로 積極的態度에 나가지안코 當分西班牙國內情勢의推移와 各國政府의動向을 注視한後 新政府에對한 方針을決定할 意向인데 마드리드治安回復을기다리여 目下산·잔·드·루즈市에잇는 矢野公使一行을 마드리드市에 回歸시켜 新政府와의間에 外交關係를開始하고 事實上新政府承認의態度를 取할것으로推測된다

第七十議會召集詔書

【東京電話同盟】第七十通常議會召集期日은 來十二月二十四日로 決定、九日官報로써 左와如히詔書가 公布되엿다

詔書

朕은帝國憲法第七條及 第四十一條에依하야 本年十二月二十四日로써 帝國議會를 東京에召集하노라

御名御璽

昭和十一年十一月七日 各國務大臣副署

開院式은 天皇陛下親臨下에 同月二十六日 午前十一時貴族院에서 擧行될豫定이다

敬老愛幼日의 南總督人事要旨

九日敬老愛幼日에 南總督은 龍山官邸에 高齡者를 招請하엿는데 其席上다음과가티 人事를하엿다

余가 敬老의府인데 諸氏가 和睦히 多數來會한것은 余의 衷心으로欣幸함에不堪하는 바이다 此機會를利用하야 一言人事를하여두고자한다

周知함과如히目下全朝鮮을通하야 國民精神作興週間이란것을實施하고잇는데 今日은 그第三日에該當하야 「敬老愛幼日」이다 大槪長老를 尊敬하는것은 人間本然의 至情이오 且道德의 根源인데 特히東洋에서는 敬老의良習이 牢乎하여 朝鮮에서도古來醇美風이 非常히 盛한것은極히 良風이라생각한다 此美風을民衆全般에 普行實踐하고자特히精神作興週間中에 敬老의一日을加한것이다

古來朝鮮에서는 人生幸福으로壽、康寧、攸好德、考終命의五福이라하는데 就中壽를 其中第一로하야 그런데 御來會한 諸氏長老는모다 八十以上長壽하옵고 健康을 享受하시는것은 一家를爲하야 도國家를爲하야 慶賀하야마지안는다 今日에當하기까지 만흔子女를 育成하고 家政을 整頓하고 會社公共에 盡力하시와 餘生을 보내는것은 祝福하고 ... 이며 所謂積善之家有餘慶이라할것이다

多數來臨하섯스나 不拘코 何등의 接待도업스나 新鮮한 一日의 歡樂하심을 希望하여마지안는다

北平教育界中心 抗日運動深化

軍人學生共同戰線

【北平八日發同盟】南京交涉及一般北中時局進展에 關聯하야 北平教育界及 學生團의 抗日運動은 最近急激히 活潑하야 過般北平各大學七十二教授의 時局宣言以來 學生團의 請願通電及地方農民에對한 抗日遊說等 全面的急進民族의 抗日戰線結成에拍車를 加하고잇다 特히 가장注目되는것은 學生及 軍隊와의抗日戰線擴大工作인데 軍隊時間에各各을 憑藉하야 頻繁히 兩者의接近을 圖하고 抗日思想을相互에 鼓吹하고잇다 第二十九軍下士卒과 學生抗日團과의 共同戰線結成은 이미 事實上成立된것으로 推測되는데 此는 實際政權上層部의 日中提携工作과는 全然背馳되는方向을示할것으로將來北中經濟開發 其他一般的發展에重大한障碍를 齎來할것으로 豫想되고잇다 右에 關한最近事例를 枚擧하면 左와如하다

一、北平各大學 七十二教授의宣言後 今明日中에 北平師範大學教授 學生을 中心으로한抗日通電이 發하기로 되여잇다

一、淸華、燕京兩大學學生其他一千名의 學生은 七日第二十九軍의演習을 參觀한後 軍民聯歡大會를 開催하고 抗日演說을行하야 氣勢를 올렷다

一、北平師範大學學生의 發起에依한 華北各學校聯盟 各校代表百數十名은 七、八兩日에亘하야北平郊外各農村에 潛入하여日本軍隊演習에 關하야「同胞에告하다」 上記한抗日宣傳포스터를 撒布하고 激越한抗日演說을하엿다

一、淸華大學은 代表者를 綏遠省政府主席傅作儀氏下에 派遣하야 軍民抗日聯絡의 結成及綏遠의 積極的防衛를 要請하엿다

一、北平各大學代表若干名은 中央政府에 抗日의 請願을 하기爲하야 南下하엿다

上海紡績工罷業

【上海七日發同盟】上海의中國紡績會社中 永安、申新、恒豐紡織의 三社職工約五千名은 今年의 景氣로 紡績의 採算이 有利하게된것을 理由로 賃銀引上을要求하고 六日朝부터 罷業을開始하엿는데 同日午後 日本人이經營하는 上海紡織에도 飛火되여同工場은 六日正午부터 七日午前一時半까지 三回에 亘하야 機械運轉을中止하고 사보타쥬를繼續하엿다 工部局方面에서도 事態를 重視하고 嚴重警戒하는데 他의日本人紡績工場에 波及할念慮가만흠으로 事態의 推移는 極히 憂慮되여잇다

有權者資格擴大 女子參政權考慮

陸軍側에서研究中

【東京電話同盟】議會制度刷新에關하야 陸軍에서는 自主的으로 具體的意見을 五相會議又는 閣議에提出치안흘方針인데 議會刷新의徹底를 期하기爲하야는 陸軍으로서도 獨自的立場에서 研究할必要가잇스므로 目下陸軍局에서 選擧法及 議院法의 改正을中心으로한 研究를 進行하고잇다 그리고 選擧法關係에잇서서 目下研究中에잇는點은 被選擧權을如何히할가하는것이다

一、議會의內容을 刷新充實하기爲하야 被選擧權資格을 改正할것

一、民意暢達의 徹底를期하기爲하야 選擧權資格을 擴大할것

이 具體的研究의 材料가되여잇는模樣인데 有權者의 資格擴大와 一方法으로서 國家參政의實을 充足키爲하야 女子에게도一定한 資格을 規定하야 選擧權을賦與하라는 意見도 相當有力하다는것은 注目된다

話題論說

米大統領權限과그特異性(中)

또米國大統領에게는 議會를 解散할權能이업스므로 議會에서 多數의反對黨이 바를境遇에서라도 袖手傍觀할수박게업서서 그任期中에는 議會의向背如何에不拘코 默守치안코면아니되다 解散權이 賦與되여잇지아니한 代身으로 議會로부터 信任不信任을묻지도안코나 反逆、瀆職其他重大한罪行을 犯한境遇에는下院에서 彈劾할수는잇다 이러한境遇에 上院의 裁判을經하야 有罪라 決定한때는 解職되나 其他境遇에는 如何한犯罪事實이잇더라도 在職中은 逮捕되는일은업다

그우에 大統領의任期四年에 對하야 合衆國議會議員의 任期는 上院이 六年으로 二年만에 其三分之一式이 改選되며 又下院은 二年만에 全員이 改選됨으로 行政部와 議會와의關係는 二年만에 變更되는不安이잇다

右는모다 行政、立法、司法의三權分立主義를 固執하는米國政治의 一大弱點이오 缺陷이라할것이다。大統領選擧와議員選擧는 同時에行함으로 選擧運動의 境遇 大統領候補는 其黨派의首領으로서 當然選擧의目標가되고 自身이 陣頭에서서 其黨派의 政策을 宣言하나 一旦選擧에 成功하야 大統領의 月桂冠을 쓰게될때에는 議場外에잇스면서 直接立法에 參與되는일업다

實際上에잇서서는 大統領은 立法에 스게됨으로 大統領의 任期에 對하야는 合法的手續으로 責任을 지게되는것이 條約으로 말미암아 다음 二條外에는 없이 잇다

一、合衆國議會에 對하야 國家의 政務를 報告하고 且立法上必要한 注意를 與할것을 命하여잇슴

二、議會委員會는 實際上必要에 應하야 行政各部長官又는 重要官吏를 證人으로 喚問할수잇슴

또大統領의所謂 敎書는 日本首相이 議會에서 發表하는 施政方針演說과가튼데 政治經濟社會等 國內重要諸問題及國際重要諸事件에對한 政府의政策을 此로써中外에 宣言함과 同時에 自黨及自己의立場을明白히함으로 米國의政治的年中行事의一로 全國民은勿論 世界各國의重視하는바이다

다시 注意할것은 大統領에게 議會(兩院)을 通過한法律案에 對하야 拒否權이 賦與되여잇는것이다 議會를 通過한 法律案이 效力을 發生하기爲하야 原則으로서 大統領의 署名을 必要로한다 萬若 大統領이 署名치안는境遇에는 該法律案을 大統領이 受領한後 十日以內(日曜日除外)에 署名치안는 理由를 附하야 此를 最初提案한 議院에 返附치안흐면 아니된다 萬一大統領이 此手續을 取하지안는境遇에는 署名이업드라도署名한것과同一한效力을發生한다 但議會閉會때문에 右議院返付의 手續을 取하지못하는 境遇에는그대로 消滅되는것으로 되여잇다 此를 稱하야 大統領의포켓·페트-라한다

叛軍市內에侵入 政府軍과激戰中

【라라베라八日發同盟】하라베라 發表하거는 叛軍當局은 叛軍의首都入城을 確認하고 八日午後七時(日本時間九日午前四時) 左와如히發表하엿다

叛軍은 八日午後만사나레스河市內에 侵入하고 目下만사나레스沿岸에서政府軍과 激戰中이다

西閣僚撤收時에 金準備金을移行

【발렌시아八日發同盟】카바레로首相以下 人民戰線閣僚는 七日首都마드리드市를撤收할에當하야 西班牙國立銀行所屬의 金準備金 全部를 카르타헤나港에移轉하엿는데 人民戰線內閣은 右에對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叛軍은 首都에 侵入하여도一온스의 金도 發見할수업슬것이다 此等貴重한 準備金이 叛軍手中에 들어가면 차라리 我等은 海中에 投死할것이다

一般會計繰入金問題

外地側은到底不可能

【東京電話同盟】永田拓相은 增稅及이에關聯하는 特別會計의一般會計繰入金問題에關하야 外地全般의意向을 聽取하고 具體的金額을 決定하기爲하야 來週十日頃 外地首腦部會議를開催하고 慎重檢討를 加하기로 되엿는데 繰入金問題에對한 外地側의 意向은 左와如히 大藏當局의 要求와如히 尨大한 一般會計繰入은 外地의實情에 卽하야 到底히 不可能하다는 强硬論을 갓고잇다

一、外地의特殊事情에 鑑하야 增稅를實施할수잇는것은 最大限法人의 所得稅의增稅程度인데 이것도 만흔것은아니다

一、朝鮮을비롯하야 南洋、樺太等모다 數次의風水害로 其復舊補助로 巨額의出費가잇고 따라剩餘金과如한것이 僅少할것은自然으로 繰入金과如한 財源을 發見하기는 困難하다

鮮滿拓殖 職制와人事決定

鮮滿拓殖會社의 新職制는 九日 認可指令에 接하엿스므로 同社에서는 左와如히 職制以下의 辭令을發하엿다

▲職制六課制 總務、經理、金融、產業、移民、管理、

▲課長

總務課長 中澤川誠吉(前京城商工小作官)

管理課長(總務課長兼務)

金融課長 (經理課長兼務)

產業課長 鈴木 (前慶北產業課長)

移民課長 未定(產業課長兼務代理)

經理課長 大野 (前慶南會計課長)

또監理課는 拓殖會社의 直系傍系會社를 監督하는것이오 兼하야 事業의 監督을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朴勝斗氏(慶北公普校長)六日午後七時府內禮智町九二番地自宅에서遭外艱發靷은十日午前六時

▲金恒變氏(柳韓洋行事務取締役) 滿洲中國方面出張中十一月十一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歸京

▲레오니-드·아이신氏(京城駐在蘇聯總領事) 革命記念式完了人事次來社

▲아·이와노프氏(同總領事館書記)同上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社務를帶하고平安南北道에出張中이든바 九日午前十時三十五分歸社

八面鋒

◇西班牙의 遷都는 事實이나 首都陷落說은 虛報라고。

◇大勢가 기우러 遷都할地境이니 陷落說이 傳하는것도容或無怪이지만、

◇虛報放送地가 葡萄牙인 點으로보아 眞否如何는 斷定키困難。

◇民意暢達이라는 意味에서陸軍側에서는 選擧法을改正하야女子에게도 一定한資格으로參政權賦與를 考慮한다고。

◇民權尊重을 爲하야 議會制度를 强調하고 政黨政治를力說하는 代議士諸君들! 顏色이잇는가?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弊所는 從來二로는 一般供給上 廣高不能으로因하와 今般製造家를 募集하오니 他製造家에 比하면 五割以上 利益을 得할것은 勿論이 오니 良好하온 機會를 失치마시고 速히 應募하시압

東亞 軍手

製品宣傳

一、製品은 四季를 勿論하고 永久히 使用할수 잇삽고 又는 勞動者의 必要品이오니 一般諸位는 速히 購入하시압

一、工場은 年中無休로서 晝夜作業中이오니 諸位는 多量注文하시압

一、弊所는 他處보다 安價로 販賣하오니 各地方에서 注文하시압

一、特約販賣店을 募集하오니 有志諸位는 照會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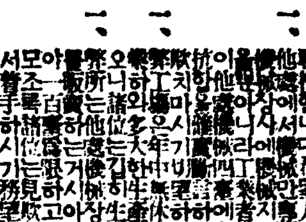
(東亞마크를 詳細調査하시고 購入하시압)

(店主御希望은 案內書를 請求하시압)

東亞手袋工場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電話本局② 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男女共に心得置くべ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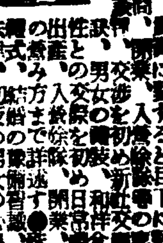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諸礼法 婚礼式

世間百般の挨拶の仕方や儀式の心得を知らないで笑はれる人が隨分多い。本書は朝夕の挨拶から、目上に對する挨拶、目下に對する挨拶、訪問、客の接待、出産、病氣見舞、葬式、弔問、年始、婚禮、結婚後の心得等一切を網羅す

定價金五十錢 送料八錢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番 現代出版社



女事務員募集

資格

一、高女女商出身者로未婚에限함

二、年齡은二十才까지

三、身元保證人二人을要함

申込及期限

希望者는本月十八日까지自筆履歷書에最近寫眞을添付하야郵送하시요

臨時事務所 京城府公平町一六四

世富蘭偲眼鏡院本店 黃鶴周方

支店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一 (電光二三二一)

간질

責任治療公開 精神療法、神藥、米國카 ... 最後의 決心으로 問議하라

京城府新設町七十一 京城溫炙院

電話担保金融 低利極秘

電話高價買入

南大門通一ノ四(二階) 電話本局(2)三七七七番

ブキラ 電話賣買取引 明商會

超特品羊皮類一式 賣成商店大廣告

將來成功의 五個年間 ... 半價

寶成商店 謹告

新報案內

貸家

市內最中央 水道 電氣 ...

恩給

最大長期 ... 通信照會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鎭會

男女 淋疾 麥茸五淋錠

朴家粉化粧品 박가분화장품

本舖 京城蓮池町二七〇 電話光化門二三〇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京城鍾路四丁目五 綱緞綿布都散賣商 電話光五七一七番

週刊 中央時報

朝鮮唯一의週刊新聞

半島言論界의解剖刀!

本紙는月刊으로부터 出發하야드되어週刊에이르기까지에 七個星霜이라는 長久無數한難關을突破하면서今日에야 固하基礎를잡게되엇다 어제부터本紙는十萬圓株式會社라는經濟的土臺우에서二千萬民衆에게 소리치려는것이다!

一支局募集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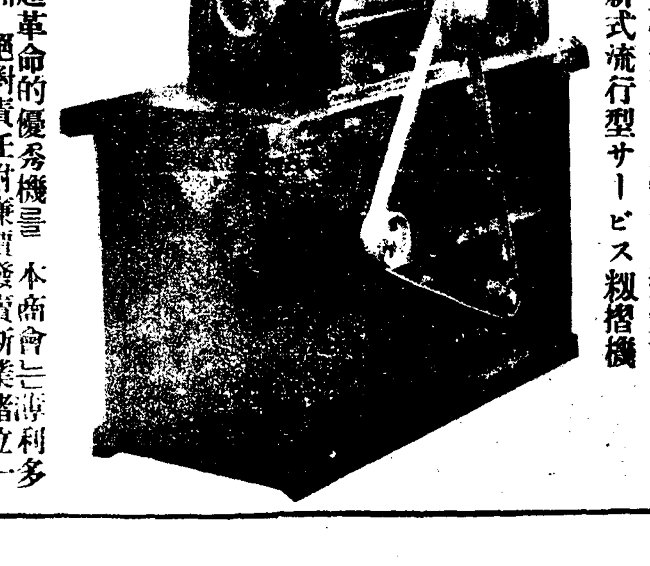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週刊中央時報社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東洋機械製作所實用新案 最新式流行型サービス籾摺機

籾摺機界超革命的優秀機를 本商會는 薄利多賣主義下에 絕對責任附廉價發賣하오니 斯業諸位一次試用乞

(型錄請求進呈)

總販賣店 朝鮮商會

京城府西界町一八九番地 振替口座京城一五九八一

香油 머리기름은

라랑랑香油

오지에一가시엿가

間島省과安東省을「朝鮮의延長」으로
特殊地帶의特別行政區域設定
關係當局意向合致

총독부에서는 관동군과 만주국당국과 협의한결과 간도(間島)와 동변도(東邊道)즉현재의간도성과 안동성을 특수지대로하야 조선인을 위한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야 만주국으로서도 특수한지역으로 하는동시에 조선으로서도 조선의 연장과가튼 특수지대로산게되엇다한다 간도성에는 현재총인구의팔할이 조선인일뿐아니라 안동성과 간도성은 총독부의금후 백만명 이민의후보지정지로 결정되얏슴으로 교통이발달됨에따라 다수조선인이 이주하게될것임으로만주국의 관하에 잇다하여도 행정상교육기타 일반적 시설에 잇서서 총독부에서 이에관계하며 참가할필요가 잇다는것이다 따라서 량성의관리에도 수노부를비롯하야 다수조선인을 등용케하는일방 학교교원도 조선인을 다수채용케되리라한다 그리하야 량성은 직접조선과 관계되는지역이된관계로 지리적일체 일뿐만아니라 인문(人文)상에잇서서도 조선의연장이나 다름업시되야 행정적으로도 특별구역으로될터이라한다 이것은 총독부에서 수년전부터 생각하여오든것으로 이번에 남(南)총독의 조만일여(朝滿一如)정책에 의한 그것의실현으로보이어 주목되는바이다

돈三圓때문에 殺人하고懲役사리
一審三年、二審六年에不服
上告棄却된村사람

주머니에 너헛든 돈삼원이십전을일코 그것을 끄내간 사람을 밝혀내려다가 잘못하야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징역륙년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여온 시골농군이잇다 전남보성군복내면시천리(寶城郡福內面詩川里) 윤석현(尹錫賢)(四七)은작년십이월이십팔일밤에 그동리윤석우(尹錫宇)에게 꾸어먹은 벼의리자로 돈삼원이십전을 갑흐려고 주머니에다너코 그의집으로 갓든바 때마침그가밧게나가고업슴으로 그곳에서 그집머슴아이 림종철(林鍾哲)(一五)과 그동리 윤석천(尹錫天)의집고용인 윤상옥(尹相玉)과함께 윤석우가 도라오기를기다리다가 그대로그곳에서함께자고 그이튼날아침자긔집으로도라가서 주머니를살펴보즉 돈이어데론업서진것을알게되자 그는 가티자든림종철과 윤상옥 두아이중어떤아이의소위임이틀림업다고 생각하고 이십구일오후에 전긔두아이를 불러다가 밤나무가지로때리며 목침으로 이마를 때리며 돈을끄내갓다는자백을 바드려하엿스나마침내 자백을밧지못하고 삼십일아침에 도망하는윤상옥을 그동리뒤산에까지 쫏처가서 자백을어드라고 손으로 목을눌러숨이막혀죽게하엿다 이사실이 경찰에탐지되야 그는살인죄로 일심에서 징역삼년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하여왓든중 그공판이구일오전열시 고등법원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검사는 하등의 상고리유가 업다고 상고긔각의견을진술하엿다

阿片密賣犯

충북옥천군(沃川郡)부내중림정(中林町)일백사십구번지에사는 도긔(陶器)행상 홍처선(洪處善)은 ... 봉래정(蓬萊町)삼정목 삼번지부근에서 아편을 밀매하다가 서대문서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重要使命띄고 潛入暗躍中被捉
中國서온林鳳淳、今日送局

시내종로서고등계에서 얼마전에 시내종로(鍾路)일정목이십번지 림봉순(林鳳淳)(二三)이라는청년을 검거하여다가 엄중취조한후 구일 일건서류와함께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넘기엇는데 사건내용인즉 전긔림봉순은 수년전에 중국으로건너가서 각종민족단체에가입하고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를 금춘에마친후 약두달전에 어떠중대사명을띄고 시내에잠입하야 암약을 하고잇다가 미연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龍山、大田間의 超特急試運轉
八九兩日도成績良好

초특급용 차량은 전번에 룡산(龍山)의정부(議政府)사이에서 시운전을하야 그결과가 량호하엿든바 팔구량일에는 룡산대전(龍山、大田)사이에 공식시운전을 행한다 그결과 예긔한 성적을내면 십이삼량일에 경성부산(京城、釜山)간의 공식시운전을행할터이라고한다

罪지은몸을 죽엄으로淸算
詐欺事件綻露되자飮毒

지은죄가 경찰에알리게되자죽엄으로써 청산하려든사나이‖부외 독도면 서독도리(纛島面西纛島里) 삼백십팔번지 ... (延四路)(三三)은 구일아침여덟시쯤되여 동독섬코깃우에서 고민하고잇는것을 길가든 사람이보고 고부근독도의원(纛島醫院)에 다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그는얼마전에 한강리(漢江里)사는 김모(金某)라는사람으로부터 돈수십원을 사긔하야먹고 고소를 당하자 죽엄으로써 결말을 지을라고 양재물사서먹은 것이라고한다

二十犯재걸러든 六十歲늙은"스리"
六歲때부터배운버릇

화가산현(和歌山縣)출생 주소 기일정치못한 서본청차랑(西本淸次郞)(六一)은 수일전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정자옥(丁子屋)이층에서 시내 남미창정(南米倉町)이백오번지 전긔(田崎)『유끼』(三一)의 현금십오원 가량이나 드러잇는 손가방을 훔치고다라나다가 순찰중의 본정서원에게 붓들리여서 이때그서에 인치당하고 취조밧는중이다 그는 어려서 조선으로건너와서 열여섯살 먹든해에 소매치기를하여서 태전형무소(太田刑務所)에서 징역사리 일년을지낸것을 비롯하야 전후 열아홉차레나형무소출입을하엿다고한다 그리고 이번에 송국되면 보기좃케 전과이십범이라는 경력을 가지게 된다고한다

「興甫傳公演」(十一月五日부터 五日間東洋劇場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階上九十錢 階下七十錢 → 七十錢 五十錢으로
一人一枚

九日曉兩處出火
苑南町新築家屋燒失
阿峴町서는草家二棟半燒

구일 오전다섯시오분쯤에 시내원남정(苑南町)일백구십칠번지에 신축한 빈집에서 불이나서 열다섯간가운데서 열간을 태워버리고 소방대의 활동으로 오전다섯시오십분쯤에 겨우불을끗다 집주인은 백관수(白寬洙)씨인데 오늘아침까지 말릴양으로 불을 만히 너헛든바 너무더워서 드디여화재를이르키게되엿것이라한다 손해는약일천오백원가량이라한다

◇……또 구일오전한시에 시내아현정(阿峴町)팔십오번지의 백십이호 문원여(文元汝)(六四)라는 로인의집에서 불이나서 초가두채이호를 태워버리고 소방대의 활동으로 한시오십분에 불을잡앗는데 손해는백원가량되리라하며 원인은 루전(漏電)이라한다

鑄城町에小火

구일오전 세시오십분쯤에 부내주성정(鑄城町)삼십사번지 잡화상하는 강선모(姜善模)의 집 연돌에서불이나서 집웅두평가량을태우고 약삼십분후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이십원가량이라고한다

鐵道局會議室에서 手小荷物事務協議

철도국에서는 구일부터 삼일간 본국제이회의실에서 오전열시부터 제이회수소하물(手小荷物)사무 협의회를 열게되엇는데 협의사항은 취급관계수송관계 통열(通閱)관계등이다 그리고 출석자는 영업서무량과장 본국급각사무관계자 주요역장각렬차구장 소하물주임등이다

齊肥會議都同大南平
平壤牛肉
すきやき
京城明治町入口
味の店ほあぐらん
電本(2)1289番 同 4684番

天氣予報

概況 七百四十二미리의 低氣壓은「오호쯔크」바다에 잇고 高氣壓은 滿鮮에 잇서서 七百七十一미리를 보이고 漸次로 日本本土方面으로 移動하고잇서 北滿은 氣壓이 낫다 滿洲와 朝鮮은 날세가 조호나 京城、仁川地方은 一般日本內地도 대개 晴明하나 琉球諸島及東北地方以北은 曇하고 樺太는 風雪이 甚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은 晴明하고 明日은 曇 그리고 京畿道全區도 도한갓다

昨日最高 九度三
同 最低 零度一
今朝最低 一度六
今日正午 一〇度八

明年부터十二道에 刑事課를順次新設
都市膨脹과犯罪의激增으로
鑑識設備擴充도緊急

경무국에서는 각도에형사과를 독립식히고저 매년예산을 요구하엿스나 재무당국의사정으로 실현되지못하엿는데 현하조선내의 도시팽창과 범죄자격증하는현상으로보아 중요도시의 형사과독립은 매우긴급하게되얏슴으로 위선명년도부터는 일반경찰관의다수증원계획으로 이것을 형사과의독립에도 충당케할터이라는데 명년에는 평남과경남경북의 세도 래명년에는전남평북 함북함 아홉도의 네곳등매년사도식 증설하야 현재는경기도 한곳밧게 업는형사과를 십삼도에 전부설치할터이라한다 그리고 형사과의 분리독립과 아울러 각도에 감식(鑑識)설비도 할터이라는데 현재는 경기도에 비교적 충실한 감식설비가잇슬뿐임으로 이것역시 매년 한도식 감식시설을 하여갈터이라한다

共産主義同盟事件 十名만二審請求
李昇學等七名은取下

지난시월십구일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호천(戶川)재판장으로부터 최저징역 년으로부터 십년까지의체형판결을 바든조선공산주의동맹(朝鮮共産主義同盟)사건관계자 허춘달(許春達)등열일곱명은 그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 수속을 하엿든바 그중리승학(李昇學)등 일곱명은 공소를취하하야 다음 열명만 서류와함께 구일경성복심법원으로 너머왓다고한다

▲許春達(三一)▲許應徹(二七)一審懲役十年 ▲方京浩(三三)同六年 ▲池吉南(三一)同五年 ▲徐太石(三七) 楊松岩(二七)同四年▲裵□燾(二七)同三年▲許東浩(二六)▲朴希雲(二七) 崔仁孫(三〇)同二年六月

急告!!
ベルサーカス
連日滿員謝禮키爲해
九、十、二日間
各等五十錢均一

거리죽엄兩件

가을도가고 립동이지냇지 이틀이못되여 시내 이거리 저골목에는 벌서 긔한에죽어간 불상한 사람들이잇다

▲구일오전열시경에 시내황금정(黃金町)칠정목오번지 압거리에서 나이 마흔살쯤된조선인남자가 사망되여 잇섯는데 경찰에서 조사한결과 폐결핵의 행려사망자로 판명되엿스며

▲팔일오후여덟시경에는 시내관훈정(寬勳町)일백구십팔번지압헤서 역시 사십세가량된 행려병자가 죽어잇섯다

精神作興週間(第三日)

南總督龍山官邸에 二百高齡者招待
午餐會에餘興까지

국민정신작흥의 제삼일인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인구일오전십일시부터남(南)총독은 룡산관저(龍山官邸)에 전조선 고령자이백삼십명을 초대하야 오찬회를 열엇는데 남총독으로부터 인사가잇고 리윤용(李允用)남의 답사가잇고 리왕직아악대의 연주와 시내각유치원아의 유희등으로 하로를 즐겁게보냇다고한다(사진은룡산관저에서 남총독의 테불에 는로인네들)

運動競技

專門蹴球經過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의第十回蹴球大會第一日은 八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昨報以後의戰績은 다음과가트며 今九日에行할 決勝戰에는 醫專과法專이 對峙케되엿다

醫專2 高農0
【前1…0、後1…0】

【第四次】醫專對水原高農準決勝戰은 同日午後三時부터 李裕鎣(主)、金東妓、李容一(線)三氏審判下에 醫專先蹴으로 開始한바 前半一分에 醫專突然攻勢를 取하드니 CF金載君의「헷」으로 「골인」되엿고 高農軍敗攻의好機를凡蹴으로마치게 前半戰을終了하고 後半戰에드러가 醫專攻擊猛烈하얏스나 高農軍의「풀킥」의妙防으로 膠着되엇스나 同十八分에 醫專RW李幸燮君의「헷」으로 一點을追加하야 結局二對零으로 醫專快勝하야 決勝戰에서 法專軍과對戰케되엿다

【醫專】 【高農】

醫專	位置	高農
崔鎭恒	GK	[illegible]
魯炳鍋	RF	[illegible]
金東漢	LF	[illegible]
[illegible]	RH	[illegible]
[illegible]	CH	[illegible]
[illegible]	LH	[illegible]
[illegible]	RW	[illegible]
[illegible]	RI	[illegible]
[illegible]	CF	[illegible]
[illegible]	LI	[illegible]
[illegible]	LW	[illegible]

【醫專】前	後	計		【高農】前	後	計
1	1	2	得點	0	0	0
1	0	1	門蹴	6	6	12
1	2	3	隅蹴	0	0	0
1	1	2	自出	4	4	8

올림픽會場은 神宮外苑에

【로스안젤스七日發同盟】國際올림픽委員 副島道正伯은 歸國途中에 지난 六日「로스안젤스」에 到着한바 故國歸還을 압두고 다음과가티 重要談話를 發表하엿다。

余는 十一月十一日 倫敦宿舍에서 國際올림픽委員長「라투르」伯과 다음과가튼 諸點에 關하야 談合意見의 一致를 보앗다。

一、冬季競技開催에 關하야서는 「월소」會議에서 決定함

二、大會는 IOC가 主催國의 NOC의 編成한 組織委員會에 委託케함

三、慣例에 依하면 IOC의 任命한 顧問技師를 主催國이 採用하기로되여잇다

四、必要할때에는 第十一回大會의 書記長「테이렘」博士도 來朝케됨

五、組織委員會는 IOC의 議定書를 尊重히함

六、來年의 IOC委員會 總會에서 第十二回大會의 「프로그람」一切을 提出함

七、各季競技를 行할時에는 日本이 選定함

八、「스타디움」의 收容人員은十萬名을 超過치 안흘것을 希望함 但日本의 國情에 依하야 十二萬으로 增加하야도 無關함

그리고 歸途 「로스안젤스」에서는 米國 國際올림픽委員 「가린트」氏及 「헤리」氏를 招待하야 懇談한바 이사람들의 共通된希望은 神宮外苑에서의 競技開催에잇다 「라투르」伯도 이것을 條件으로 東京을 推薦하엿다고斷定하엿다余도또한終始外苑을 主張하엿다

中等럭비豫選 培材軍一勝

朝鮮럭비協會主催의 全日本中等學校럭비大會 朝鮮豫選은 八日正午부터 龍山新球場에서 開始된바 培材高普가 京畿商業을 三十對零으로 擊破하엿스며 養正高普는 京城中學과 對戰할豫定이든바 京中의棄權으로 養正不戰一勝하야 來十五日에 培材와 對戰케되는바 競技日程은 다음과갓다

▲十五日‖午後二時半 養正對培材
(第二回戰)
▲二十一日‖午後二時 京師龍中、培材對養正勝者와 西朝鮮代表新義州高普(以上準決勝)
▲二十二日‖午後二時半決勝戰

◇第一回戰

京城師範10 (10…0 0…0) 0京城商業

龍山中學35 (13 22…5 0) 5善隣商業

培材高普30 (19 11…0 0) 0京畿商業

【京畿商業】 【培材高普】 FW HB TB FB

平壤籠球리그 第五日의戰績

【平壤】崇專體育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의 全平壤籠球聯盟戰第五日은 七日午後七時브터 崇專體育館에서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崇實B 49 (25 24…4 8) 12 崇商B
平商 28 (15 13…14 11) 25 崇實A
西洋人 31 (17 14…16 4) 20 光成B
崇商A 39 (11 28…9 5) 14 光成A

卓球大會

京城運動具商會主催의 第十六回秋期全鮮卓球大會及 第四回老童卓球大會는 來廿二、三兩日間午前十時부터 太平通來間에서 開催될터인바 大會規定은 다음과갓다

▲參加資格‖男子部에는 一般男子、女子部에는 一般女子(但協會加入者에限하되 未加入者라도當日加入參加를許함)
▲申込方法‖勤務處와校名及姓名을記載하야 每人一枚로往復葉書以外申込은不受함
▲申込期日‖十一月十五日까지抽籤은同十八日
▲申込場所‖京城本町一丁目京城運動具商會

明大럭비勝

【東京電話同盟】慶大對明大럭비戰은 八日午後二時二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慶大先蹴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十對三으로 明大快勝하엿다

明大40 (27 13…3 0) 3慶大

輕費診療
貫鐵町一三五(우미관골목)
大衆醫院
電光五二一四(오이사 オイシヤ)

天一靈神丸
가을!
가을이왓습니다
換節期에는飮食을注意하십시요
兼하야消滯良藥「天一靈神丸」을
準備하야주십시요
不意에생기는吐瀉癨亂에神效할
뿐아니라恒常服用하시면모든病
을豫防하실수잇슴니다
效能 ▲食滯 ▲吐瀉癨亂 ▲暑滯 ▲消化不良 ▲酒滯 ▲胸痛 ▲氣體逆上 ▲頭痛 ▲腹痛 ▲關格
藥價 十錢 二十錢 五〇錢 一圓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鍾路 天一藥房 本舖

矢野
スケート
スケート附屬用品
京城本町一丁目四九
都賣 藤野商會
散賣部(京城運動具商會)
矢野テント商會

百萬의巨富도이法則
돈이利를낫는秘訣

아바안氏上에서巨萬의 致富를바라는것은 不可能에가까운 困難事이지만돈이 그自身이가진自働增大하는 法則을 잡어 巧妙하게利用하면 確實有利한利殖이 될수잇는 確實한方法으로二百七十圓에 活用하야 十四圓二十錢 六毛即 元金百圓에對하야一割三分彌이라고하는郵便局도 銀行도其他가到底히不及하는高率利殖이 되고 또그方法은安全第一의 石橋主義다 現金二千圓을가젓스면 이方法으로 運用하야 地方에서도 살수잇스며利息으로 넉넉히살수 잇는것이다今番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二十五番地大東出書店에서發行한「金錢活用安全利殖」이라는冊은 實際의秘訣과돈의利를낫는 妙味를說明하야 確實히누구나實行할수잇고알기쉽게 紹介하엿다 內容은 今日世間의妙味 銀行預金活用法 百圓이十年으로 五千圓 郵便貯金活用法 債券利殖法 公債利用一萬圓貯金法 信用貸利殖法 一年間으로二倍半으로만드는法 土地의利殖法 家屋利殖法 女子의손으로 할수잇는 商業等二百餘項目에亘하야 豊富한內容이잇는同書는 定價一圓五十錢이지만 五百部限하야 겨우一圓으로希望者에게 頒布하게되엿다 品切되기前에 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送本한다

クラブ乳液
專賣特許
綜合ホルモン含有
若返り化粧水
구라부乳液은專賣特許의綜合호르몬과肝臟製素와를含有하고잇스므로 살결을윤택하게하고, 기름과, 주름, 여드름, 죽은깨등을防止합니다
(五〇錢 六〇錢 一圓 二十錢)
구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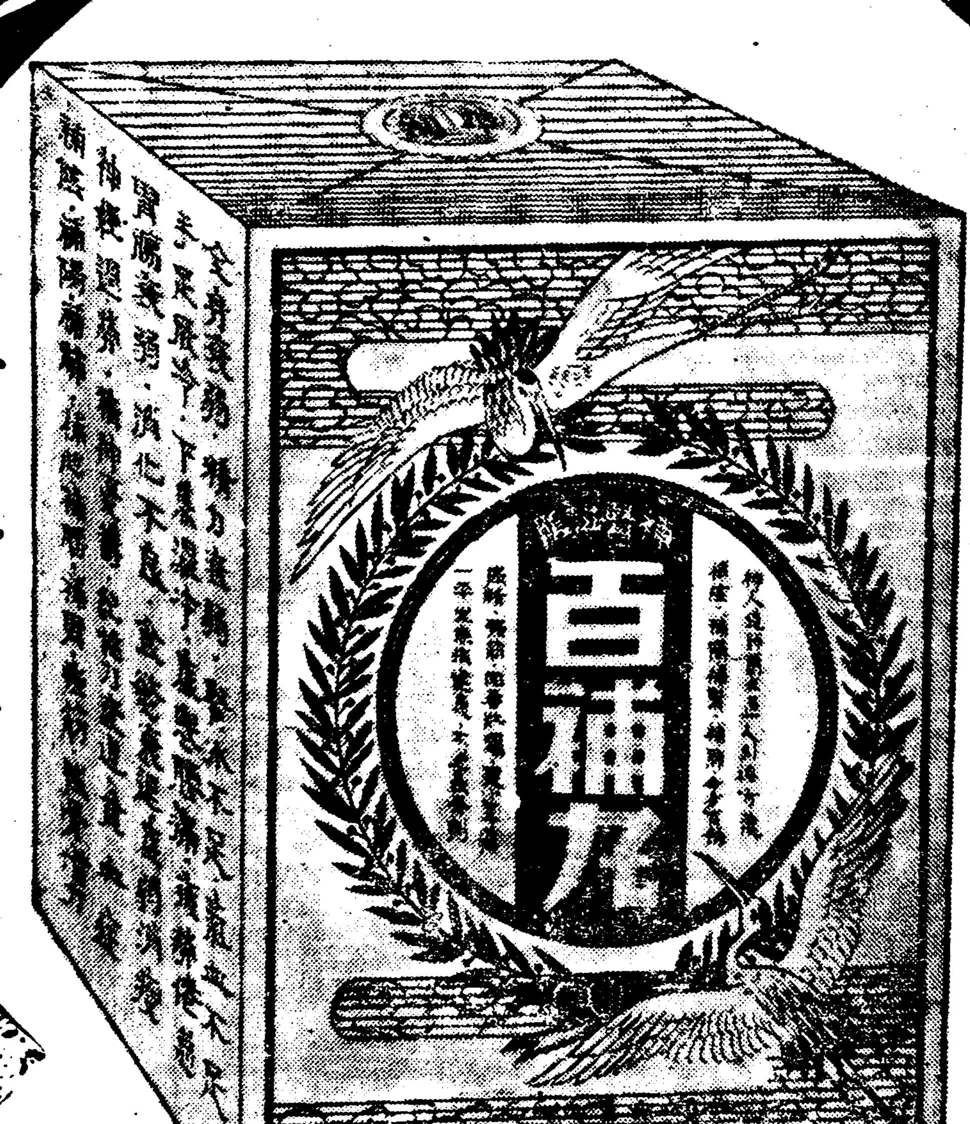
勿失好機

百補丸一箱無料進呈期限도 滿期迫到不遠締切되오니

機會를일치마시고一日速히注文하시요

不老長壽・更少秘藥

高貴漢方　補血強精



百補丸의由來

百補丸은 昔日中國에 神人道師葛玄眞人의 絕世秘方藥으로서 이藥을常服하면 實로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다는 神方名藥입니다

平和堂이多年間 莫大한勞力과 經費를드려가며 苦心探索의結果 드듸여 千古에무첫든 百補丸秘方을 求하야 널니江湖諸氏에게 頒布하게된것입니다　百補丸이 世上에發賣되자 그効力이非常함으로 貴族 兩班 各界朝野名士들비롯하야 四海諸氏의 熱烈한賞讃과 愛用推奬을밧고잇는中인니다더욱이 只今 世界第一紀念으로 百補丸一劑사는분께(十圓包半劑入)一箱式 無料進呈中이오니 機會를일치말고 只今即時 注文服用하시요

滿期締切期限이 不遠하엿숨니다

男女老少

一、老年이 쓰면 更少年이되고

二、壯年이 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 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靑少年이 쓰면 精神이聰明한秀才가됨니다

陽氣不足、氣血不足은 長壽못할前兆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白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消化不良、체증、속병、등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短命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靑春이되시요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藥이됨니다

●눈이밝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짐니다

●全身五장六부를 다 잘補하야 참말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增進됨니다

●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 速効함니다

●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 잇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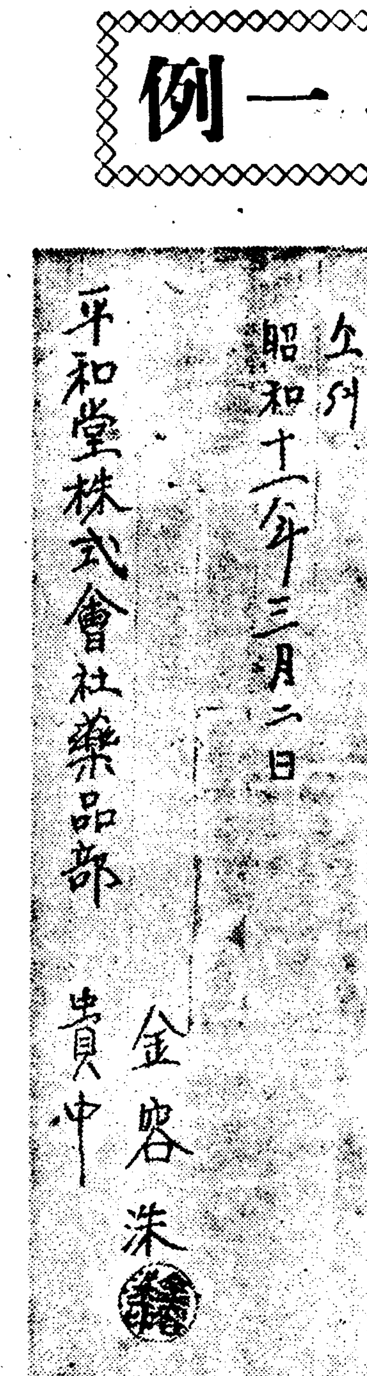
百補丸効力證明의一例

萬金不換의此事實

一、百補丸이 엇던藥보다도 참말 조타는것은 廣告가아니라 實際事實이 證明함니다

二、全朝鮮各地道廳、郡廳、金融組合、面事務所 員等을비롯하야 各銀行 會社團體에서 共同注文이 날마다 踏至하는것은 百補丸이 事實로조타는 證據입니다

三、東亞日報社에서만도 幹部 社員 工場員等의 累次共同注文이 四十餘劑에達할뿐아니라 新聞에廣告나는 藥을써서 이러케큰効力을본것도 百補丸이 처음이라고 말함니다


註文書

一、百補丸 七劑

右는本社各部社員中百補丸의効力이卓越하다는말을드른先服者에게先七劑를共同註文하오니送藥케주소서 但代金은先排할터이오니領收證도同封해주소서

昭和十一年三月二日

金容洙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貴中

先着一萬人限無料進呈

世界第一紀念一

躍進日本쓰포ー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伯林에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榮光의마라손一等! 政府는國民保健을爲하야 一千萬圓의保健費를豫算하는等健康問題로天地가振動하는이때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同胞의健康을爲하야또는世界的쓰포ー쓰를紀念祝賀하기爲하야 損益不拘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十圓分一劑사시는분께百補丸(十圓包半劑入)一箱式을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남보다먼저一日速히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無料進呈은中止함니다

●注文書에는必히(祝賀特賣注文書)라고明記하시요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用 二十圓

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奬勵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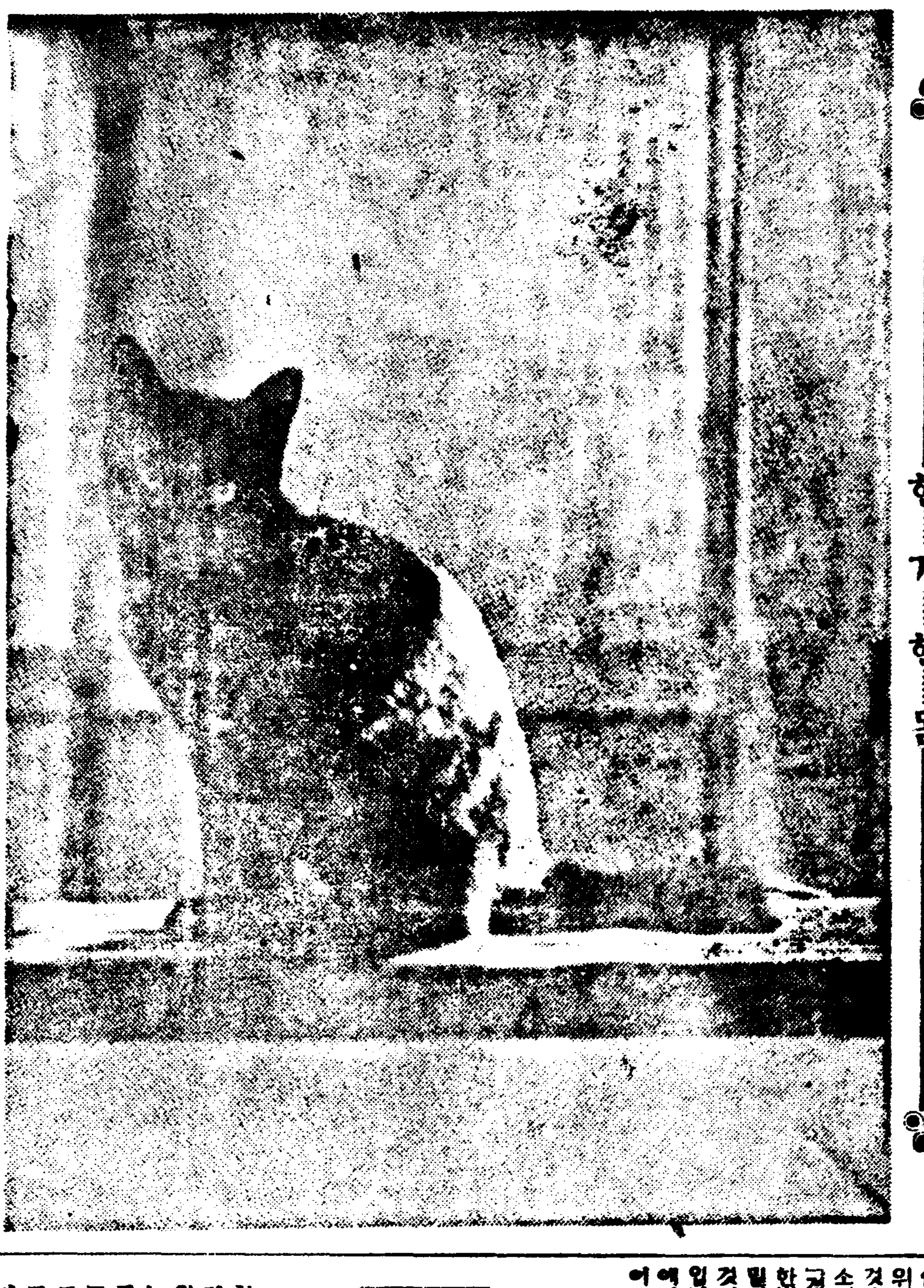
三、全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 商品陳列所

四、全朝鮮 和信連鎖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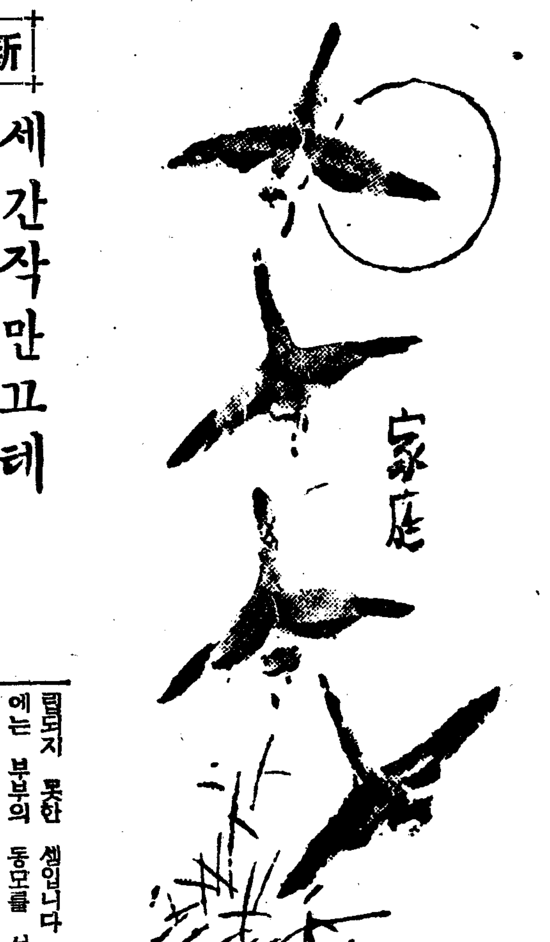
●全朝鮮大藥店에 委託販賣募集中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電光)六三二(振替京番)



한……가……한……몸



新婚時代

세간작만고테 마음의ー삭림사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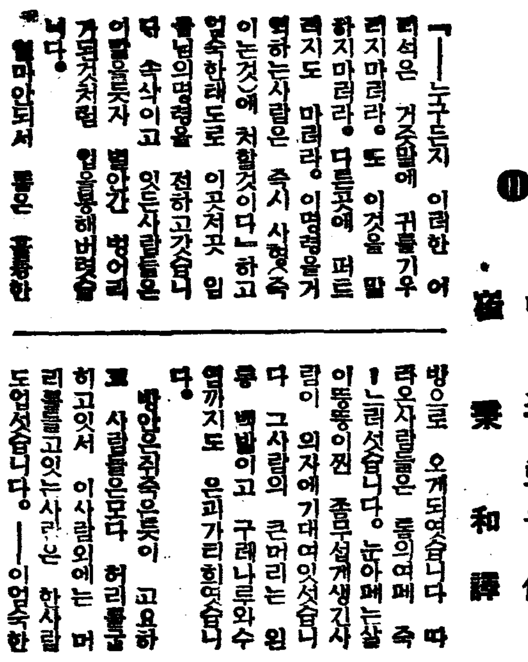
서로리해가잇자면비밀이업도록 과거의허물은뭇지말일

가을의 결혼절후를 지난 요사히와서는 새살림의 신혼생활이 시작될때입니다 인생생활에 제일행복스러웁고 달큼한꿈을꾸는듯한 시간을 차즈라면 아모리하야도 신혼시기밧게는 업슬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를 간직한가을 하날이 명랑한것과가티 어느때까지라도 행복스러워야할 신혼생활도 어느때어떠한것이 닥쳐올지 누가보증할수잇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침착한 태도로 이행복을 기리기리유지하고 계속시키기 위하야 연구할 필요를 늦김니다 결혼당시는 소위신혼기분으로 부부사이에 경의와 겸양을 가지고 서로 것잡을수업시 무르녹는사랑가운데서 지나게 되므로 신혼시기라는 중대한시기를 이저버리고 경솔을 가져올우려가잇습니다

안해되시는 분의생각에는 어느때까지라도 이러한 달콤한시절이 계속될것을밋고 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잘못된생각입니다 위선 신혼시기라는것은 특별한시기라는 것을 알어두어야합니다 신혼부부로서 제일필요한것은 서로 인간의 솔직한 모양을 가지고 서로 리해할길을 차저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시간에 준비되지안흐면 일생동안의 기초공작이성립되지 못한 셈입니다 그다음에는 부부의 동모를 서로소개하야 줄필요가 잇습니다 남편으로 말하면 학창시대의 동모라던지 가튼회사에 단이며술먹는친구라던지 숭배하는 선배와선생을 기회잇는대로 안해에게 소개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야 서로서로의 생활의 배면을 리해시키는것이 조흡니다 이것을 『퍼ー스펙티ー브』라할가 좌우간 사람마다 알수업는 그사람의 생활의 배후를 아러두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부부간에 산보를 하다가도 어떤여자를 남편이 인사하고친케 대접할때 안해로서볼때『어떠케 해서 남편은 그여자를알가?』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싹트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을방지하기위하야는 신혼초에 엘범과리스트를 내여노코 서로서로 동무와 친구를그들의 생활과인격과 성질등까지를 이야기해들녀여서 어느때어떠한 사람이 차저오더라도 그사람의 일홈을 듯고곳 그사람전체를 리해하며 남편이나안해와 어떠한 관게에 처해잇는사람이라는것을 아라채리도록 준비해두는것도조습니다 그리고 제일신혼생활을 위태하게하는 과거의생활! 어떤것은 원칙적으로 결혼과함께해소되엿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결혼하야서 일생을가치할 진실한벗을 어둠과동시에 과거의비밀이란 어두운것을 이저버리는것이다」이것은 신혼생활의 비결입니다 이런한것은 신혼생활중에서 어떠니 저러니 머리에새어 고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안이라고 할수업습니다 과거를이저버리고 압날의행복만을념두에둘것입니다 그럼으로이것은 일종 랑만주의(浪漫主義)입니다 그리고 련애와약혼시절의 달콤하던시절을 생활속에 재현시켜서 사랑의 불길에 기름을 처주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한두번식쯤은 부부라기보담 연인이라는 기분을가지고 산이나들로도라단이는것도조흔일입니다

토픽 ××불상한형제××

최근 영국서울의 정신병자수용소에 나온 두사람의 녀인이 잇섯답니다。그들은「가사링」「브링」이라는 형제로 형은 사십이세 동생은 서른여섯살된 늙은처녀들이엿습니다。그들은실버ー에스타ー라는 동생을 죽인죄로 감옥에 잇다가 정신병자의관결을 밧고 수용되엿든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온전할때 조서에 대답해노흔 내용을 드러보면『우리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리행하느라고 동생을 죽이엿습니다。동생은 어려슬때부터 재조가 둔하고 못낫스므로 이십년동안이나 우리들은 동생을 키우기위하야 날마다 간호부노릇을 해왓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때문에 그만 병이드러서 죽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생을 돌보느라고 시집갈시기를노치고 그냥처녀로 늙게되엿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끗끗내 못난이가되고 말앗습니다 사랑하는 나 동생을 위하야 일생을 밧첫스나 동생은 못나니를 면치못함으로 차라리 천국의 어머님게 보내서 어머님의 사랑으로 곳처볼가하엿습니다 동생도깃거워할것입니다』라고쓰여잇섯습니다



왕자와거지 ⑪

마ー크·로웬 作 富·栗和 譯

『ー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운 거즛말에 귀를기우리지마러라。또 이것을 말하지마러라。다른곳에 퍼트려지도 마러라。이명령을거역하는사람은 즉시 사형、죽이는것에 처할것이다』하고 엄숙한태도로 이곳저곳 임금님의명령을 전하고갓습니다 속삭이고 잇든사람들은 이말을듯자 벙어리가된것처럼 입을봉해버렷습니다。

얼마안되서 좋은 훌륭한 방으로 오게되엿습니다 따라오든사람들은 톰의여페 죽ㅣ늘러섯습니다。눈아페는살이뚱뚱이찐 좀무섭게생긴사람이 의자에기대여잇섯습니다 그사람의 큰머리는 원통 백발이고 구레나루와수염까지도 은피가리힌엿습니다。

방안은죽은듯이 고요하고 사람들은모다 허리를굽히고잇서 이사람에게는 머리를고잇는사람은 한사람도업섯습니다。ー이엄숙한 얼골을한 병든노인이야말로 헨리ー팔세(八世)엿습니다。

임금님은 톰의얼골을보시자얼골을 부드럽게하시고『어쩐까닭인가에드와ー드? 그대를사랑하고잇는 이애비를 그대는 그런고약한 작난을해서 근심을시게하는가!』

톰은 처음에는 엽서히참어가면서 듯고잇다가 지금눈아페게신분이 자기나라황제페하(皇帝陛下)이시란것을 알게되자 갑작이 색파라케되여서 마치 총알에나마진것가티 펄석주저안저무릎을꿀코

『아、황제페하십니까、그러면 이제는 꼭죽엇습니다그려。』이말에 임금님께서도 적지안케 낙담이 되시여서 자기아페 두손을처들고잇는 소변의얼골을 한참바라보시며서 한숨을쉬셧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만 생각햇드니……。』하고 말슴하시드니 음성을 터부드럽게 하시면서

『에드와ー드야、이리로오나라。너는 어디몸이 아픈가보구나。』톰은여러사람에게 부축을바더 이러섯지만 그저 벌벌떨면서 아프로나갓습니다。임금님께서는

『왜그러니? 응』하고 말슴하시면서 아직것 벌벌떨고잇는 톰의얼골을 두손으로 부드럽게 끼시고는 귀여워 서견딜수가업는듯이 한참바라보시드니 톰의머리를 자기가슴가까히대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셧습니다。

『에드와ー드야、너는 너의 아버지를 이저버리엿느냐? 너무병든애비를 괴롭게하지 마러라。자、나를안다고말해 바라。내가 누구인지 말해 바라。』

『네、당신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귀하고 노프신 황제폐하이십니다。』

『그러타、그러타。네말이마젓다。ー자、고만 마음을편히노아라。그러케 떨지안허도조타。이곳에는 한사람도 너를괴롭게할 사람은업다。모다 너를 귀애하는사람뿐이다。이제는 나뿐꿈을 얼른깨여라。ー그리고 누구란것도 잘아려야한다。』

그러나 톰은 그말에는대답도안코 별안간

『임금님!』하고불럿습니다『제발제가 말슴·드리는것을 자세히 드러주십시요。저는 저는임금님미테잇는 백성중의 제일천한사람의 자식입니다。거지의 자식입니다。오늘 우연한일로 이러케되엿습니다。그러나 그것은절코제가나뿐것은 아닙니다。저는아직 어린애입니다。죽고십지는 안습니다。임금님 외한말슴으로 저의목숨을 고축고합니다。제발그말슴을한마듸만해주십시요』

『뭐? 죽어? 그런말을하는것이아니다ーー애、에드와드、정신을차려라、결코 너를 죽게하지안흘테니。』이한마듸를듯자 톰은 갑작이무릅을꿀트니 기쁜듯이

『임금님、고맙습니다。』그러드니 벌떡일어나서 시종두사람에게도 (임금님을 모시고잇든신하)하며 말하엿습니다。

『당신께서도 드르셧지요 지금 나를 죽이시지안는다고 임금님께서 말슴하신것을……。』

그러나 방안에잇는 사람들은 오직 공손스럽게 허리만굽히고 잇섯슬뿐이엿습니다。

『이제 물러가도 조흡니까?』

『가고시프면가도조치만 좀더여기잇스면 어떠냐。ーー대체 어디로가겟다는말이냐?』

『이제는 임금님께 용서를어덧스므로 저의집으로 도라갈라고합니다 이궁궐(宮殿)보다도 다쓰러저가는 저의집에는 어머니와 누님이살고잇습니다。저에게잇서서는 이즐수업는집입니다。저를 곳 돌려보내주십시요。』

임금님께서는 잠잣코 잠간동안생각하고계시드니 그의 얼골에는 점점 근심과슬픈 비치 짓터가시엿습니다。

『에드와ー드는 오직 이한점에만 부끄럽지못하고 다른점에는 조곰도 미친증이잇는것가티안타ーー자、한번시험해보자。』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옛날말로 톰에게말을건니엿드니 톰은 좀더드므면서 옛날말로 대답을하엿습니다。임금님과 신하들은 모다기뻐들하엿습니다。

유행은딸트라도 이런점은 참고할일

그해뿐아니라몃해든지입을것 모자와의 색조화관게

외투

겨울 외투를 준비할때가 닥첫습니다 외투를 지어입으라면 금년의류행을 차저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양복류행이라는것은 해마다 갈리는것임으로 류행을 전연떠나지도 안코 실용적이며 언제내여입어도 수수할것을 끌으도록하며 모양도 이러케가지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외투는 양복과가티실내에서는 입지안는것이니 양복보다는 훨신 활동적이여야할것입니다 너무 까러안진것은 재미업슬것갓습니다 「라입」은 웨스트라인(腰線)을 너무잘라매지안흘정도로 알마즌「체스타필드」형으로 할것이며 「벨트」를매고 동정은 옷동정을넘게한「가ー스」코ー트로하야 가슴은 맥풀다추로하는것이 금년의대체의류행입니다 이것은 모ー닝에도입을수잇스며 놀입을수도 잇는리상적 타입입니다

외투를 지을때는 첫재 억개에 여유를두어야합니다 여기에 여유가 업스면 외투가무거워 저서 외견을 마음이따분하고 실증이 나며 모양이 곳허러 집니다 벗갈은겨울의 충충한 늣감을 업새여버릴 명랑조를 선택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은빗갈은 단연배척할것이며 될류 차빗가 듯것이 조흡니다

그런데 요사히 일반적경향을 살펴보면 모자와양복과외투와 구두를 모다한색으로 하는것이 가장 조화된것가티생각하고잇스나 사실 이것처럼 무모한것은업습니다 양복과외투의 동색은 서로조화되는것이안이라 서로 빗갈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될수잇는대로 반대색을가지고 상극에서 조화를 차저야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말를 든다면 양복이 고동색일때는 외투는 회색 양복이 푸른빗(綠色)일때는 외투는 고동색으로하고 모자가 고동색이라면 외투는 푸른빗인데 외투비슷 중심삼고 모자비슷 여기에 종속시키도록해야합니다 양복과외투는 갑시 만코 구두와 모자는 갑시 적으니 언제던지 양복과외투를 중심삼고 모자와 구두를 가질것입니다 그리고 넥타이는 양복모자 외투등의 빗갈을 보아서 여기에 조화를 가지도록해야 합니다

박오가리저장법

박오가리는 그냥 양철통가튼데 너허두면 나종에 꼽팽이가 되여서 먹지못하게되는 수가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감듯이 단단하게 감어서「하도롱」이나 「세문판」조히에 잘 싸서 양철통에 너허두면 도모지 꼽팽이가 피지안코 오래들수 잇습니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네꼴 웃읍구나
벼이삭 안쥽고
벌 쓰는거냥。
×
아니다 얘
나문이삭
새 무러갈까바
직히고 섯다。

(글쓴사람 최창선)

유ー모어小說 姓女씨 (三)

金熊超 作·畵

屋上風景(3)

래하군의말에 대해서 민보군이가만히 잇슬리만무하니다。

『녀편네면 녀편네지 상스럽거시무어잇나。녀편네라고하나 누라라고하나、안해라고하나 다 매한가지지』

『글세 녀편네말은 상스러운사람들이쓰는문자지 점잔은사람은안쓰는말이야』

『허ー 그사람 어지간히 우기네。그래 이세상에 상스런사람이누군가、자네빼노코 또잇든가?』

『……여러소리말게』

민보군은 이말 한마듸를 내던지고 담배를 피어무러 연기를 죽죽 뿜밧습니다。실상 민보군은 여지껏 그세가지 구별을 명확히 인식못해 왓술뿐아니라 지금이자리에서는 습쎄빠저서 남의공논을 엿듯다가 새로운지식을 어게되면 그때가서 려기운변체를 써보라는 영리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관수군역시 그모양입니다。그러나 두사람의 대화를 대조하는데서 어떤암시를 어든모양입니다。

『가만듯잇게 자네들의 해석도를 럿네。고리다는말과 구리다는말이 비젓은하나 뜻이다르데 한차 안해니、마누라니、여편네니 여려가지말이 잇슬때는 까닭이 잇슬게라 말이야。그리고 여편네라는말이 상스럽다는 주장도근거가 박약해 왜그러냐하면 정작 상스런말은 따로잇서……게집이란말이 잇지안흔가。막되어먹은 녀석들은 네게집 내게집하니까……』

이말에 민보군은 다소숨을돌렷습니다。그러나 뜻하지안흔 씨름군을 또하나 만난태하군은 끗끗내 질기둥이 노릇을해야 되게생겻습니다。

『그래 게집이란말도 상스런말이야。그러치만 게집이니 여편네니하는말은 원래상스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거야。들뜨워노코 여편네니 게집이니하면단순한 녀성이란 뜻이되지안나? 그런데 상스런사람은 장가들면 제가차지 한것이라해서 내게집、내여편네 이러케 부르단말이야。엇잿든 길게우길것업비안해란 버젓한、말업는말이잇스니까』

어떠케 옥신각신하게되고보면 여지껏 침묵을직히고잇든 사람은 중간에나서서 시비를 가려노튼지 그러찬으면 유리한편으로나서서 말을거들어부치든지해야할것입니다。

이때 몽백군은 팔짐을끼고섯다가 두어거름나서섯습니다。쥐가무러뜨든듯한눈은 빗낫습니다。자못 정중한태도로 입을버렷지요。

『음! 래하군의안해란말이 를른 올하。그러치만 게집이니 마누라니、녀편네니、그런아닐세……처니、부인이니、와이푸니、따ー르링이니、심하면 그것 그변가튼것도 잇는데 그것과 그년은 빼고라도 모두 다가튼안해란뜻으로 세상에서 쓰는것만은 사실이야 그런즉 구태여안해란말하나만 남기고 기왕잇는것을 죄다 버리기는아깝지안흔가。그래서 내의견가태서는 그 여러가지말을 다쓰되 우리네안해에게 어떤경우에 어떤것을적용할것인가 이것을 한번생각해보잔말이야。우선 내가 가편안(案)을 제공해볼까?……나여점꼬 이불이반반한 구식색시 이것을 안해라고하고、심술이 원만하고 바가지 잘긁고 억척스런것이면 녀편네、이쁘지도 못하고、그다지 못나지도안코、말업고 무골충인것은 마누라、소박데기인주제에 강짜가 심한것은 게집。데리구살기는 시른데 업부형시하라 꿀꺽참고 본숭만숭하는것은처、시집올때 땅마지기나 언저가지고 와다고 거드럼빼는것은 부인、신약전서를 행하게 외운다시고 점잔히 설교만 하는녀성이라면 와이푸、사랑이나 사다노코 밤낫 몰고잇는 최신식 멋쟁이라면 따ー르링이라고 해지 별수잇겟나。…… 자 자네 비틀 생각에는 어떤가?』

근청하든 세사람은 일제히박수를 햇습니다。그리고 제마다얼굴을 실룩거리는품이、자기네가 가지고 잇는문제의 녀성들은 과연어느부류에 속한것인가를 차자보라고 애쓰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보지 민보군이 끄려냅 『녀편네를 뭐라고부르난』는 그뜻이탐습니다。

新日本의傑作品

찔은싱거ー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商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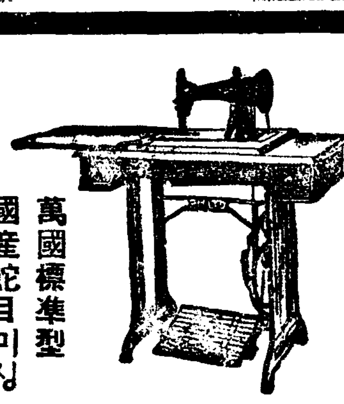
躍進日本!의覇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遂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世界的躍進의結晶으로서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얏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舶來品과比較하야서 털끗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 『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히퍼지고잇습니다。

東京 本工場에서는 年産額 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總發賣元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illegible]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

大阪支社 大阪市南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一〇

各地支社 名古屋、東京、靜岡、橫濱、神戶、京都、青森、甲府其他

蛇の目 미싱

담기침 천식 백일해

치운때에 걸리는거침병에주의하자

느진가을이되면 일기가칩고、몸을차게하면 기침병에걸리게됩니다 기침이 무서운것은 어느결에위험한變症을 일으키는수가만흐니 즉폐염 폐결핵으로 변하기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기침이라고 담、기침에 잡럽케 생각지마시고 그리대소들을뿐만아니라 이러한變症을防止하는作用을가진 靈藥 龍角散으로 하로바삐 곳처주시기바랍니다 龍角散은 효과가적확함으로 세계각국인사께환영맛고잇어서 世界의모든 樞要都市에서 권위약으로 頒藥되고잇으며 더구나 조선사람의 체질에꼭맛는만큼 더욱유효합니다

登錄商標 龍角散

龍角散의適應容態書

(咳嗽)ー담으로 항상 괴롭게굴는분
(喘息)ー천식으로 그르렁거리고 숨찬분
(百日咳)ー기침이 잣고 밤잠 못이루는분
(流感)ー류행성감기로생기는담기침나는분
(肺病)ー폐병으로 늘 밧븐기침 하는분
(肋膜)ー담에서 냄새나고 피가섞기는분
(音聲)ー목소래가쉬고 또는 언사하기괴로운분
(小兒)ー어린애의 흉역 기침하는 아이

아모리 중한病이라도 二三週日 계속하야 복용하시면 곳 근치됩니다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番

▽全朝鮮藥房에서판매합니다△

【眞興王北省碑遊記】(五)

萬德山月夜

李殷相

寒雲의一顆을 千金으로 헤아림은 美的인意味에서 생긴 말이지만, 나는 여기 秋夜의 李碑을 萬金으로도 안바꾸려 하는것이니 이것은 實的으로 하는말이다.

하물며 洞天에 月이 밝고, 山菊香내새를 싫어오는 가을 바람이 옷깃을 흔드는 밤이것느냐.

뫼노하면 寺觀을 모두뜯고 닭밭을 숨기려 돌에나렷다.

正殿앞 큰마당에 노피선九層塔 이것은 萬德寺 唯一의寶物이다

이塔은 多寶塔으로서 英祖三十六年(西紀一七六〇)庚辰에 兩年間을 費하야 세운것이다

本是 多寶塔이란것은 多寶如來의 舍利塔으로서 일부러 寶塔을 이 靈鷲山에서 法華經을說하실적에 多寶如來의 全身舍利(佛體그대로의化石)를 安置한 一寶塔이 地下로부터솟아올라 그속에서 소리가나며 佛說을讚揚하고 또證明하엿다는것이다

三四層 屋角이 깨어저서 塔身을 塔아래 모아두엇는데, 깨어진채로 寶物은 寶物이아닐수업다。二百年도 채못된 쩌른歷史를 가젓지마는 보기에 上代의 古趣가 나는것은 만든이의 敬誠眞心과아울러 그가決코 凡手아니던것을 알게하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塔婆에對하야 彫刻的批評을 試驗코저아니한다.

웨그런고하니 나는 오늘밤 밝은달아래 塔을보는것보다 어떠의 그림자를 사랑하고십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윽하냐, 어떠케나 아름다우냐. 影子의浪漫이란것을 아는이는 알것이다. 可히 觀察할수는잇스되 오히려 非하지는 못할것이니 거룩하다면 이것이 메거룩한것이오, 애달다하면 이것처럼 애달픈것이 어디잇스랴.

바라만 보는사람
만질수 업는사람
거룩한 이사랑이
애달고 아까워라
나가고 물러고하야
밟만기며 가는고냐

이影을 實物과아울러 생각한다면 물인채 하나이오 하나인채 둘이면서, 머문냥 움직이고 움직이되 머물엇스니 이것이 또한 多則一, 一則多 動則靜, 靜則動의 華嚴消息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천천히 다시 발걸음을옴겨 寺門밖 松林사이로 散策한다.

神秘한 自然이다. 뉘가 여기 佛敎의 雄弘치못함을 탓할것이냐. 이대로 法界莊嚴이 이곳아니냐.

修道과 農行을 오히려 大衆禪으로 自修하는 오늘이매 金殿안이 그대로 麥것의 舞臺밝게야 자리라 이자리도 衆生無人이 되올 또한 어떠하랴.

호르는 냇물소리 이끄비로 入寶塔然엣것은 古蹟이이미 하고간밥이오, 草堂나 蹟上이 안는자리마다 寶炎寺일것이며, 여원비갈대, 古松드림이 잡는대로 그것이 禪寂일것이다.

正風宜揚, 眞宗扶立이 어찌 殿閣에서 나온는것이며, 어찌 經典에서 생기는것이며, 어찌 遺書에서 엇는것이랴.

모든것은 이것으로足하다. 이 嚴嚴하고도 부드러운 大自然 이것으로 足하다.

무엇이라면 조흘까. 구름한점업는 가을밤하늘 이것은 무서운채로 맛그러운 大圓鏡인데, 떠하나걸렷고어서 물려노흔 저 玉輪 寶域을 넘겨다보던 金色世界가 바로 여기 이곳이던가. 미칠것갓다하매생각할수록 소리라도 한번 지러보고십고, 슬프다하매 헤아릴스록 시원스러히 울어도 보고십고 어쩌면 내몸이 불현듯이 어디가 엥석안기고시프면서 다시 어쩌면 내몸마저 이대로 소르르 살아지고 여기 무엇이나 (숨쉬는 물건은 모조리 치워버렷스면 하는 가전생각이 각각다른時間이면서 또기른時間에 내가속에 일어나면서 또그대로 꺼저버린다.

나는 달빛과 물소리가게에겨워 괴로웁다. 그러나 눈을감고 귀를막아도,오히려 잘 보이고 도리어 잘들리는것을 어찌하랴.

松林에 나린달빛
눈감아도 보힐려니
흐르는 냇물소리
귀막아도 들리시네
을흙나 六根圓通이
뭔말슴이 아니로다.

저李鷹叟의『周十遊身眠、手擦知好詩』란 逸句를 생각하매 더욱더 그런냥하야 내몸이 온통感激의바다속에서 무자맥질을 하는것갓다. 寂寞한 山中에 밤은 이미三更이 지낫는데。

나는 北來의魚頭谷 시내가에서 마대로 바위를치며 두어章 노래를불러 가을달을즐기면서 表를 그무는 露臺를 尋하야 돌아갓다.

鶯溪峰 山머리에
던저노흔 달일려니
구울어 松林우에
나려오던 달일려니
앗흘시 떨어젓고나
냇물속에 잠기엇네.
나그네 멋모르고
달건지려 하올터니
우수수 지는닙히
안됫말이 달을덥네
내던존 부끄러워라
주운듯이 품에넛네.

(續)

十一月創作評
關聯性과心理描寫
① 嚴興燮

今年五月 엔가 내가 本面에 創作月評을 쓴일이잇다。

그때 나는 月評따위를 쓰지 안흐려 決心 햇것만 또다시이 붓을들게되엿다.

무엇보다도 남의作品을 참으로 理解하고 正當히 「評」하기란 가장 힘드는 일이기때문에도그럿거니와 될수만잇스면 作品을 쓰는사람은 제作品이나 着實하게쓰는것이 穩當한 態度가아닐가 시퍼기때문이다.

그러것만 이번도 評筆을 들엇다. 現在 나도 作品을쓰고잇는 사람中의 하나이니까 여기에쓰는 이評이란것은 決局 내自身의 내個人의 創作體驗에비최여 남의 作品가운데에서 어떤部分을 攝取할가? 어떤部分이 나와다른點인가? 를 밝히여 보려는데 그치려한다。

먼저 『朝光十一月號』부터 낡기로한다。

×

尹基鼎氏作 『車夫』

最近尹基鼎氏는 評論에서 創作으로 轉向한 사람들가운데 量에잇서서 가장만흔 作品을 發表한분이다

『自畫像』『私生兒』『寂滅』等과 어번의『車夫』는 「今」年下半期文壇에 異彩를터지는 作品들이다。

이 「車夫」란作品은 人力車夫의 하로人생동안의 짧은生活을 描寫한 作品으로서 前記 三作品보다 떠러지지 안는作品이다。

『간난이 아버지는 人力車夫엿다。그는하로밥 人力車를 끌고 길거리로나아가 품을 팔려한다 그러나 自動車때문에 빈人力車를 끄을고 다시도라오게된다。晩餐후고 기운이업서 돌아오는 길에 自動車를詛呪한다。 땅바닥에 떨어진돈이나 떠러저잇섯스면 하고 僥倖을바란다。 그러나 失敗다。 그는다시도적질을 하려고 남의집을 넘어다본다。 그러나 老母의 우룽소리를듯고 어미업는 어린간난이와 그의老父가 선뜻생각되여 斷念한다 그런다음 그는다시 世上을 悲觀하고 自殺하려한다 그리하야 自殺方法을 끌고로 생각다가 길거리에서 색기(繩)를 주어가지고 목매여 죽으려한다 그러나그는죽지못한다 萬一自己가 죽은뒤에 「自」己의 屍體를 껴안고 悲痛할 어린딸과 「老」父의 가엽슨 뒤人일이 생각키엿기때문에 그리고나서 그는길바닥에펄석주저안저

『어떠키나, 어쩌면 조흔가?』

하고 힘없이 부르짓는다。

이것이 이作品의 스토리의대강이다。 勤勞하는 人力車夫의生活의 一面이 가장 짧은時間에 일어난 事件展開보다도 心理描寫를 通하야 讀者를질으는데가 만흔것은 確實히 勞作한 흔적이보여진다。

勿論心理描寫만으로 貫通되作品이업지안치만 이作品에 잇서서 못까지『地球』한맛을 주게되는것은 이作品의 構想에잇서서 너무도 이야기의 줄거리가 心理描寫에 置重되여 缺如되여잇기때문이나 안인가한다

人力車夫의 生活이沒落해가는 過程—다시말하면 自動車라는 怪物때문에 벌이가안되는 人力車夫의生活의 한토막을그린것으로보아 作家의取材는조타。

그러나 좀더 이作品으로 하여끔 「主」題의 積極性을 우지 못한것이 섭섭하다고하겟다。

現: 資本主義社會의機構아래 小資本이大資本때문에 亡해저가는類—機械工業이發達되엿기때문에 原始的 手工業이亡해저가는것等類는 이『車夫』生活裏面과 고리와가튼聯關性을가지고 잇다는것을 이저서는안되리라。

作品全體를 通하야 憂鬱한 雰圍氣, 絶望的인 暗憺이 떠올으는것은 이作品으로서 잇서야할 要素이겟스나 作者의 主觀이作品全體를 얇게 물들엿스니 主人公가 간난이아버지의性格이 또렷이 살지못한 理由가 거긔에 起因한다。

따러서 作者가 너무 主人公에게 同情하지나 안헛나한다。 同情이라느니보다도 그의 心理發展에 障害하고잇다。

빈車를끌고 하여여시 밤길을 거른며 慮行을 하기란 人力車夫의 習慣인 生活이것만 電信柱를 때여 「自」動車를 질풀러 두다려부시고 시플만한 現實社會에 對한 强烈한憎惡感을 가진 主人公이라면 도적질이라도 敢行햇슬것이요, 또는 自殺이라도 햇슬던지 모른다。

그러것만 主人公의 心理發展은 無意志하게도 全然阻止되여잇다。

차라리 이車夫간난이아버지가 주림에못이이여 설영 結果가失敗에도라가더라도 도적질을 敢行하는場面이나 自殺하는場面을 그리엿다면—(勿論이런 場面을 잘못쓰면 十年前푸로文學初期의 作品이되고말지만) 作品을 훨신 屈曲이잇고 主人公의 性格이生生해젓슬는지 모른다。

더구나 이作品의 結論『어떠케하나 어쩌면조흔가?』는 禁物이다

갓난이아버지로하여금 너무 絶望的인 絶望에만 허덕이게 한것은 그를 도적질하고시픈 마음에서 救하고 「自」殺을 阻止한作者의 人情과는 너무도距離가 먼 不在意의 用語가아닐가한다。

文章에 잇서서는 洗練을要하는 데가 더러잇다。

『…동여가도 모르게 썩찰지고 잇다…』(傍點筆者)

나 『재수업는김에 떠재수업시무척 인색한사람이라구 생각한 갓난아버지는부레가 끌엇다』

『조살가티 닷는괴물만은 여전히잇다금식 내 세상이라는듯이』

와가튼 傍點部分은 어색하지나 안흔가한다。

> **漢詩募集**
> 題…重陽
> 押…香
> 限 十一月十日
> (薄謝進呈)

實存哲學序說
—하이덱가를中心으로—
⑥ 朴如涯

그러면 大體 이存在理解라는 事實은 如何한것일가。人間은存在에對한 意識을 어떠한樣式에 잇서서든지 가지고잇는것이다。

吾人이 存在란 무엇이냐고무를때 이미우리는 『잇다』라는理解에잇서서 우리自身을 保持하고잇는것이다。(『存在와時間』五頁參照)

例컨대 『今日은木曜日이다』或은『나는 글을쓰고잇다』라고말할때우리는 『잇다』를 理解하는것이다。如斯히 우리는 恒常이미 存在理解에서 움직이는것이다。 그러나우리가 이存在理解를明瞭하게 把握하고잇다는말은 아니다。다만 그것은 人間에서 차질수잇는 事實的의 어떠한것이라고 理解하고잇슬따름이다。그러면 이存在理解는 如何한性格을 가지고잇는것일가。

實로 存在理解는 存在者의存在의 認識에로의 機關인것이다 一般的으로 存在者自身은 多種의 特殊的個別的學問에잇서서研究되여질수잇는것이며 따라서그 認識方法은 經驗에 依한것이다

그런데 此等 存在者의 個別科學은 存在者自體를 存在로서밝히는 根本槪念에 根據하지안코면 안된다。

하이덱가에 依한다면 存在者의 存在에對한 根本槪念의 認識은 經驗에잇서서 이루워지는것이아니라 도리혀 그것은 存在理解에서 獲得되여지는것이다

그런故로 存在者, 對ㅡ經驗또는.存在者認識은 存在理解또는 存在者의 存在에對한存在論的認識에 根據되여지는것이다。우리는 하이덱가가 認識을 存在論的이라고 表示함을 또한現存在自體도 存在論的이라고 表示한데 特히 注意하여야하겟나 그는 『存在와時間』에서 『現存在는 存在論的이다』(一二頁) 라고 뚜렷이 말한것이다。

그런故로 現存在의 存在論的性格이라하면 여기에는 存在理解의構造—그런데이것은 現存在의 本質構造도된다—와 가튼二重性이 統一되여잇는것이다。

이存在理解(또는現存在)의 存在論的性格을 考慮함에 잇서서 우리의課題는 存在理解에잇서서 理解되여지는 存在는 如何한것인가의 課題일것이다。

그存在는 存在者一般의存在인가 或은 어떠한規定된存在者의 存在일것인가。 하이덱가에잇서서는 存在理解에잇서서 第一次的으로 人間的存在가把握되는것이다。그리하야 存在理解는먼저 實存在理解인것이고 따라서 吾人은 實存에對하야 얼마마한知識을 恒常이미가지고잇다는것이 되다。

하이덱가의 意味하는 이存在理解는 決코 스코라的存在論에서와가튼 存在一般의 明瞭한自明的認識을 指示하지안코 存在理解는 한不明瞭한規定된知識에 不過한것이다。 詳言한다면 存在理解는 不規定的平均的知識이요 또한 漠然한 先槪念的知識이다 吾人은 存在를 理解하는것이나 그것의 槪念을 缺하고잇는것이다。概念以前的在存理解는 모든 持續性과廣義에잇서서 全혀規定되여저잇지안다。

그러함에 하이덱가는 存在理解의 不明瞭性 또는臨時性을 明示하기爲하야 存在論的 存在理解라는 代身에 嚴密히 先存在論的存在理解라고 明記하얏다。

여기에잇서서 우리는 하이덱가의 實存哲學의 方法的特色을 可히 推知할것이다。即 學的으로 存在論을 樹立하기爲하야 實存哲學의 取할바 方法論的問題는 如何히하야 아직 不明瞭한 先存在論的存在理解를 明瞭한存在論的認識에까지 到達시키겟는가의 問題일것이다。

新刊紹介

▲新人間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二八番 定價十錢

▲文敎の朝鮮 十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番 定價三十錢

▲發光 第四十四號 發行所 奉天西塔大街西塔敎會 發光社 振替奉天八四八番 定價一部五錢

○時光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淸進町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新聞街 創刊號 發行所 大阪北區北野町五七 新聞街社 定價五十錢

▲東京朝鮮新報 第三十五號 發行所東京市京橋區銀座西六ノ一 東京朝鮮新報社 振替東京四六二二〇番 定價一部五錢

▲朝鮮工業協會會報 第四十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海外뉴-스

큐리-夫妻訪蘇

佛蘭西가 가진 世界的化學者 『프레드릭・죠리오』氏와『이레ー느・죠리오・큐리ー』女史의 夫妻는 蘇聯邦學士院總裁『폴모킹』博士의 招請으로 九月末『모스크바』를 訪問하고 學士院의『멘데레ー프』講座를 開講하얏다 週期律의 發見者로서 有名한 露西亞의 化學者『멘데레ー프』를記念하기 爲하야 設定한것으로서 昨年秋季에 世界的化學者物理學者를 招聘하야 各各 得意의題目으로 講座를 맛게한것이다 그最初의招請을밧고 講座를맛튼니가 『죠리오』夫妻인데 今番에는 人工放射能에關한 名講義를 하게되여서 蘇聯의科學者들에게 激讚을바덧다 夫妻는 『칼포프』物理化研究所『모스크바』大學付屬物理研究所等을 視察하고 蘇聯의 科學機關의 優秀함을 激讚하얏다 (모스크바發同盟通信)

「조선어표준말모음」(7)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ㅓ를 취함】
ㅡ거라(語尾)가거라
ㅡ가라
검은엿(名)黑飴
감은엿
강엿
나머지(名)餘
나마지
남저지
ㅡ너라(語尾)오너라
ㅡ나라
떡집펄래(名)甲餘
떡장펄래
떡저이
떡적이
ㅡ러(語尾)보러간다
ㅡ라
말성부리다(動)起言端
말상부리다
마새부리다
마루청(名)廳板
마루창
마저(副)無餘
마자
벌서(副)早既
발서
버리다(動)棄
바리다
적다(形少)(多의反)
적은집(名)妾
작은집
첩
벌개
소가
벌집
소집
부십
차겁다(形)涼冷
차갑다
차가웁다
턱(名)頭(한턱내다)
탁
아버지(名)父
아부지
아바지
어금이(名)牙
아금이
어머니(名)母
어마니
어무니
어치(接尾)值(한푼어치)
아치
오라버니(名)男兄
오라바니
오라버지
오라바지
오라버님(名)(오라버니의尊稱)
오라비님
●ㅗ와 ㅓ의 通用
【ㅗ를 취함】
지라(名)脾臟
지레
질헤
질혀
길혀
황아장사(名)荒貨商
황에장사
황우장사
황화장사
【ㅐ를 취함】
가게(名)店
가가
가개
데리다(動)領率
다리다
더리다
●ㅏ와 ㅐ의 通用
【ㅏ를 취함】
바깥(名)外邊
바걸
바깥쪽(名)外側
바겻쪽
바겻짝
【ㅓ를 취함】
비녀(名)簪
비나
빈혀
삼겹실(名)三合絲
삼갑실
티격나다(動)乖離生釁
티각나다
한결같다(形)如一
한갈같다
이겹실(名)二合絲
이갑실
●ㅗ와 ㅏ의 通用
【ㅗ를 취함】
갑절(名)倍
곱절
끝장이
다랑귀뛰다(動)懸膝
다롱귀뛰다
다랑귀떼다
바구니(名)圓筐籠
보구니
바구미
보구미
발가락(名)足指
발고락
발구락
손가락(名)指
손고락
손구락
짜개(名)谷片
쪼개
【ㅗ를 취함】
께옵서(助)「가」의尊稱
께압서
그쪽(名)其方
그짝
그편
보스라기(名)小屑
바스라기
저쪽(名)彼方
저짝
저편
홉(名)合(桝用單位)
합
회초리(名)笞鞭
회차리
이쪽(名)此方
이짝
이편
●ㅗ와 ㅏ의 通用

讀者社交室

▲그림바후採金生의게。 十月二十四日附發表貴意에 合當한書籍을 本人이 讓渡하겟나이다。 新滿蒙社講義錄 六個月分全完結本인대 切手又는 印紙를九十錢分 封入하여 左記住所로附送하면 책은 直送하겟나이다。

京釜線沿線鷄浦間島金融組合內 木村 淸宛

▲一、敎育界에有意한이로써學校를經營코저하시는이와

一、男女를勿論하시고 敎鞭에 經驗이게시고 義務敎育에獻身하실수잇는環境에게신先生님은 오서옵소서

一、履歷書持參하시고 速히面會하여주심을바랍니다

京城府靑葉町二丁目九八 永明學堂 康準義

▲讀者諸位中 藥種商受驗講義錄(但第五改正藥局準據)第一號부터 第五號까지 讓渡하실분이 게시면 本欄으로 讓渡價格及住所를下敎하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册은 過히汚損되지 안엇슴을要함。

平壤一讀者

▲저는 電氣學에 趣味잇는者인데 初等電氣學에 보기조흔 書籍이잇는분은 제게 買受케하여주시요 古本이라도 조습니다 이 社交室을通하여주시요

安州建仁里初生

▲讀者諸位中 慶南晋州人權鐘澤氏의 住所아시는분은 게시면 讀者社交室로알녀주시기를바랍니다 權氏는 今年七月五、六日頃까지는京城貫鐵洞에 잇섯는데 其後 行方을알수업서답답합니다 慶南晋州에는 權氏拜親이 게십니다

(間島一友)

▲文壇諸位에게올림 本人이 左記書籍을求하오니 讓渡하실분은 賣價(但送料要旨方記錄)을 左記住所에通知하여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一、無情(李光洙著)

一、그女子의一生(李光洙著)上下篇

一、朝鮮名作選集(三千里社發行)

咸南興南邑咸興無盡兵南出張所 朱穗襲

▲本人은 現在簿記學校에規定된 家計、商業、會社、銀行、農業等의 帳簿整理法을 卒業하얏습니다 인제는 就職을求하는중인대요 月給은 實習키爲하야주시는대로밧겟습니다 商店이나會社나 家庭이나 다조흐니 地方이던지 市內이던지 有意하신분이 계시면 이欄을 通하야알려주시기를 비랍니다

A生

連載野談

布囊記 (一五六)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숙기소원(十五)

리귀를 차저온 사람은 다른사람이 아니라 리선전관이 장차 차저보려는 부원수신경원이엿다。

리선전관은 신경원이가 리귀를 차저왓스되 그 수작하는말을 들어 오래간만에 차저온것을 생각하매 분명 자긔를 부탁하려 온것으로 생각하얏다。

그리하야 자긔가 오래서잇다면 자긔를 세워노코 자긔말을하기가 거북할줄로 생각하고 먼저 리귀를 향하야

『물너 가겟습니다。후일 다시 와서 승후하겟습니다。』

하고 하직절을하면서 리귀의긔색을 엿보앗다。

리선전관은 리귀에게 하직한뒤 다시 신경원을 향하야

『대감께는 대에 가서 승후하지못하고 여긔서 승후하온것을 대단 황송히 생각합니다 일간 다시 댁에 가서 승후하려합니다。』

하며 역시 두번 절하고 리귀와 신경원의 긔색을 한꺼번에 살피엿다。

『무엇 일부러 올게잇나 만나면 반갑기야 하지만은!。』

하며 신경원은 리선전관이 하직절을 하는데 대하야 허리를 반만꾸부리며 약간 친절히대답하얏다。

그러나 리귀는 아무런 긔색도 아무런 말도업시 다만 허리를 잠간 꾸부일뿐이엿다。

리선전관은 리귀가 그처럼냉정한것을 매우 불쾌히생각하야

『에이 ○아니꼬워。이러키에 그 벼슬인지。공명인지를 거만두려햇지。그소위 병조판서의 뻔내는 행티는 그동안에도 족음도한것이 업군。』

하면서 빨니나와 말을 다시타고 곳 그길로 승상윤방의 집을 향하야 갓다。

리선전관이 리귀에게 그불쾌한일을 당하고 윤방집을 당도하니 더더구나 아니꼬운 생각이 낫다。

그래서 리선전관은 말을 내리면서 속으로

『흥。나라일을 하기는 문신(文臣)이나 무신(武臣)이 조음도 다름이 업는것。아니。어떤의미로 생각하면 무신이란 배양속는 마당에 나아가 목숨을 떼노코 나라일을하는것。그러거니 소중이 생각한다면 무신을 더소중히 생각하여야올흔일。그런데 되집어 홍으로 무신이라면. 그 문신여석들의 발사헤 때만큼도 못여기니 그런 제도가 어듸잇담。』

하면서 장차 윤방에게는 리귀에게서 보답도 떠 아니꼬운맘을 당할것을 미리 불쾌하게 생각하얏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조정의 풍습이 무관은 문관보담 그치체를 약자버 보는까닭에 문관일、더더구나 정승일헤서는 병조판서 훈련대장 좌우 포도대장까지도 소인이란 말을 계웁니며 자리에 안는것도 마음대로 감히 안지못하거늘 허물며 선전관쯤이야 더더구나 설명도 업게된 까닭이엇다。

리선전관은 이러케 문무관에 대한 차별이 너머 훗독한것을 분히 생각하며 수청방게로 가서 청직이에게 오는뜻을 말하얏다。

그 청직이는 리선전관을 한번 힐긋 처다본뒤에 겨우 코대답을하고 일부러 딴일에 밧분듯이 어슬렁거리엿다。

『흥。벌서 저 청직이 놈에게 아니꼬운일을 당하는군。』

하며 리선전관은 그 청직이가 어슬렁대고잇는것을 분히 생각하얏다。

그러나 리선전관은 그 청직이를 덜드려노코는 더더구나 리로울것이 업는것을 잘 알므로 그대로 꼭 참고잇섯다。

리선전관은 이러트 분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서잇슨뒤야 그 청직이가 비로소 윤방의 방에 단여 나오며

『들어 오시랍니다!』

하고 간신이 허기슬흔 말을하드시 어물 어물 말하얏다。

리선전관은 다시 몸매미새를 살핀뒤에 윤방 아페 일으려 두번 절하고

『그동안 문안이 너머 적조되와 황송합니다。』

하며 단정히 서서 공순히 인사하얏다。

『옹。무얼!』

하고 윤방은 빈정어리와 가튼 소리로써 겨우 대답은하나 그얼골에 나타난 긔색이 리선전관이 누구인지 잘모르는 양이보이엿다。

리선전관은 윤방의 그런 눈치를 채고

『승후하오지가 너머 오래되와 소인의 성명을 통축하시울는지。소인은 선전관으로잇든리의동이옵시다。』

하고 자긔의 성명을 들어 말하얏다。

『오오。그러지냐도 과연 좀 의의혓서!』

하며 윤방은 그제야 리선전관이 누구인지를 알게되는듯이 고개를 끄덕 끄덕하얏다。

喘息과! 기침에!

咳 기침 に

呼吸器가弱한분들게어려운『추위』가다름질하야옵니다

危險을單番에防止하기爲하야ベルマン을賞用하시오

ベルマン은舊來品과달라全혀中毒性이업고 老人、小兒에도安全히、또心臟保護作用에充足한기침藥입니다

그럼으로一般기침은勿論特히喘息百日咳氣管支炎等의慢性症에널리賞用합니다

主效 喘息、感氣 百日咳、喉頭加答兒 氣管支加答兒、喀痰 肺結核기침、嗄聲

中毒性업는鎭咳劑

ベルマン (배루만)

東京・大阪 丹平商會藥房

演藝

新劇과興行劇
主로劇硏에向한注文 ④
申孫吉

『乘』보다는못하지만『밥』의營養價値보다는 나은이『밥』의 營養價値의必要性도 偉大한것이지만 要求대로 그『밥』을잘料理할수잇는 演劇的手法을가지느냐 못가지느냐에問題는 머믈것인줄안다.

더구나 그『밥』을 咀嚼하고 消化할 朝鮮民衆의 食性과 體質에 그『밥』이맛지안흘적에는 決局 消化不良을 이르켜주는 結果밧게 못한노릇이 되것이다. 歷史的으로 社會的으로 時代的으로 오는 生活實際를 通해서보는 朝鮮民衆에對한 確然한 理解와 認識을 가지지안흐면 안될것은 勿論이다.

同時에 때마침 어두운밤이지 모를지 그時代의 主潮를 把握하려는 熱情과 意欲의 행동을 거듭고 그밥으로미레서 솜씨잇게 料理된밥이라야 할것이다.

여긔에 당당한 艱難과 懷疑가 잇고 여긔에 躊躇逡巡과 低徊가 잇고 辛酸한 時代苦行의人生的感激이 잇는것이다.

◇

나는 이매디에서 劇硏에의注文을 몃가지 말하고 시픈데 그보다도 먼저 飜譯劇에 對해서 몃마듸 意見을 압세워노코 넘어가려한다.

나의것의 遺産이 업슬때에 남의것을 攝取한다는것은 必然한 事勢요 當然한行爲라고 보는곳에 飜譯劇을上演해온 劇硏의根本意圖가 잇는것이겟지만 這間에 上演된 劇硏의 飜譯劇을우리가 바랍지안케 녁이든 理由는 專혀 그飜譯方法이 無批判的인데 잇섯든것이다.

元來 飜譯이 至難事임은 周知하는바라 飜譯은 創作이라할까지도 잇거니와 더욱 感情藝術의 飜譯이란 到底히 不能에 屬하는 일이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一擧一動 一言一辭가 모두 歷史的으로 地理的으로 文化的으로 判異한民族의 生活感情이 어떠케 그와다른것과의完全한 融和가될것이며 調化가될것이겟는가. 하물며 生活實相을 極히 自然스럽게 表現하기爲主하는 演劇藝術에 잇서서리요 往往히 外國劇을 飜譯上演하는것을보면 背景道具와 衣裳化粧은 모두 西洋것인채로 臺辭만을 朝鮮語로 해왓섯다. 여긔에 矛盾이 生起는것이다. 西洋生活에다가朝鮮會話를 시킴은 나무에다가 풀을 接한것과 彷彿하거니와 이不合理하고 不自然한 빌미가 가저다주는 不快란 다시며 말할 나위조차 업섯든것이다.

더구나 直譯으로 말미아마 이러나는 병패는 갓득이나 서투른 俳優들의 演技를 죽여버리기에 알마즌 手法이요 所謂 舞臺呼吸이 안맛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原因하는것이라고본다.

一例를 들면 그 原本에 『I hope you well live long to be wiser!』 이러한 臺辭가 잇다고 假定하고 그말을 飜譯할새 『나는 바란다 네가 오래 살기를 그것은 賢人이 되기까지 말이다!』 이러한 따위 솜씨로 直譯을해노코보면 그것이 아모리 原作에 充實하려는 良心的 態度라고 할는지는 몰라도 그러케까지나 窘塞하게 飜譯된 말은 或 어느 聰明한 文學靑年이 아니고는 一般觀衆이 그말이 무슨말인것을 얼는 알지 못할것은 너무도 自然스러운 일일것이다.

萬一 이臺辭를 제법알기쉽게 飜譯하려면 勿論 內容全體의聯關性도 떠날수업는것이겟지만 『賢明해지거라!』 하는程度의 意譯을해도 關係치 안흘상십게 생각된다.

하물며 貧弱한 舞臺에서 未熟한演技로 上演된 演劇에서우리는 當初에 가젓든 外國劇에 對한 尊敬과 興味를 抹殺시켜버리는 不幸한經驗을하게되여왓섯든것이다. 劇硏을 말할새 그評이 너무도 冷酷하엿슴은 這間의事情을 如實히 代辯하는것이 아니면 아닐것이다.

라디오

九日(月曜)

◇午後六時 童話『떡어진돈』 金福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講座 繼續하야經濟解說 朝鮮日報 徐椿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 (四)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純正調오르간獨奏와齊唱 一、小前奏曲과前走曲…뻐하作曲 二、(가) 飜譯曲 「묘슈아에서 詠唱 내게유-밸의孤寂이잇서드면…헨델作曲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지는해」 全一幕(李光來作) 配役 富豪…吳淳泳 며리…金慶善 大學生…高成允 秘書…成春鎬 보이…柳芳 放送劇友會 演出 黃檀玄 效果 劇友·苑
◇同九時一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자진난봉가 四、자진난봉가 李眞鳳 金玉葉

第一放送

◇午後六時 라듸오 敬老會
◇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純正調오르간獨奏와獨唱
◇同八時三〇分(東) 俗曲
◇同八時四〇分(大) 人形淨瑠璃

十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春香傳中 李祥奉 鼓手 池龍九
◇同一時十五分 衛生講演『冬節과皮膚』 醫博 吳元錫
◇同六時 어린이科學(無線電氣이야기) 韓德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金德文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 (五)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報念 一、報念 二、윤자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五、캐지나칭칭 吳翡翠 吳翡淑
◇同八時三五分 小說朗讀 『모밀꽃필때』(李孝石作) 申孫吉
◇同九時五分(東) 첼로獨奏 奏鳴曲 G長調 브레바-르作曲 아데레·크레만 피아노伴奏 나데디다·로히텐베르히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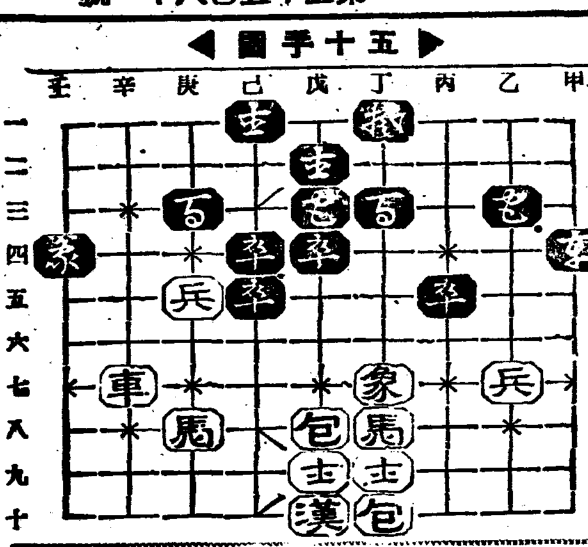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大) 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 레뷰-主題
◇同二時 常識講演
◇同六時 DK이야기會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 淸元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同九時五分(東) 첼로獨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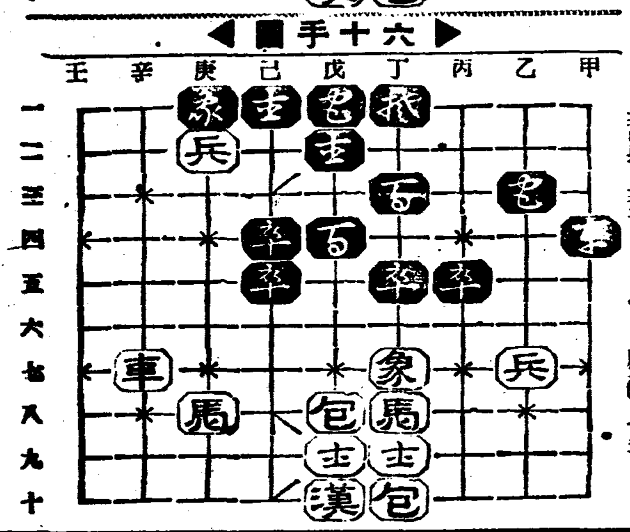
★曆★

十一月十日(火) 陰丙子九月大 廿七日
丙申·火·翼·收
●霜降二十二日(初九日)
●立冬七日(至二十四日)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兵一減 李在鳳 對 先手 盧世禎

◀五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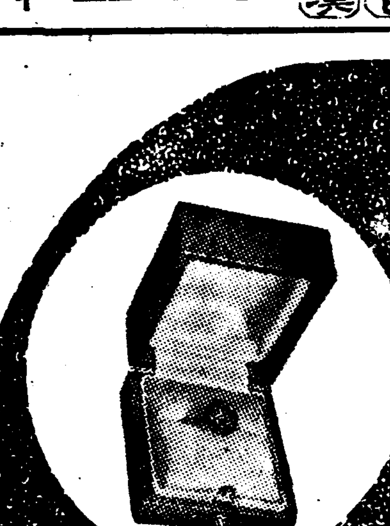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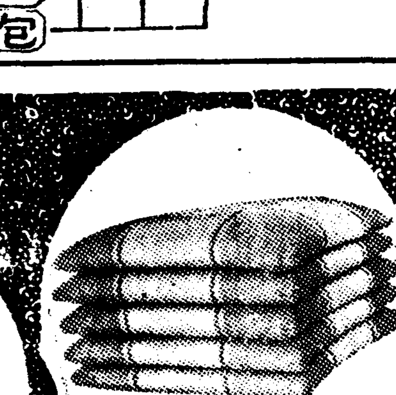
◀六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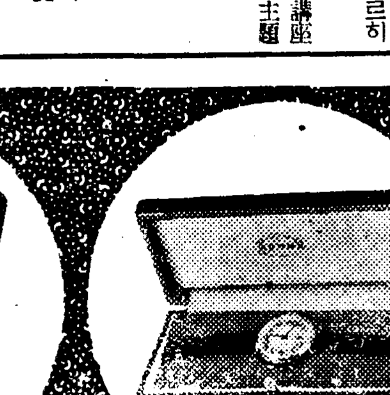
庚五兵—辛五
壬四包—庚一
辛五兵—辛四
戊四包—戊五
辛四兵—辛三
庚三包—戊四
辛三兵—庚三
戊四包—戊一
庚三兵—庚二
戊四包—丁五

御愛用感謝!

五百萬名樣總當り 大懸賞

또한破天荒의大壯擧



懸賞課題

거친살결·벗꺼름을막고 四時를通해 살결을직히는 ○○クレーム名을 아심닛가?

答案用紙와書法

レートクレム의 空函을그대로열어서、裏面白地에左의順序를記入하여近處レート化粧料參加販賣店에보내시요、(누구나 빠지지말고 應募하시요、한사람이몃장이든지조흠)

一、○○クレーム (○○○속에글자를너으시요)
二、壹等賞品中아모것이나一點、(イ、ロ、ハ로指定하시라)
三、住所氏名 (年齡)
四、レートクレム를購買하신商店과、住所
五、貴下는荒性임닛가脂肪性임닛가
六、愛護하시는、新聞、雜誌名하나를쓰십시요

近傍レートクレーム化粧料參加販賣店에서愛用하시는분들의便宜를도아答案을한대모아本舖로보냄으로 郵稅는 들지안습니다 (懸賞募集에關한問議는 近處參加販賣店에무르시라)

〆切 昭和十二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抽籤て更に二重御優待の大奉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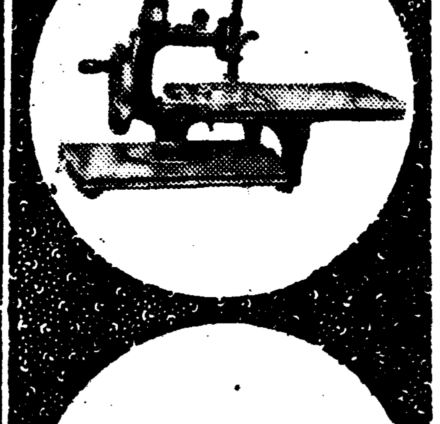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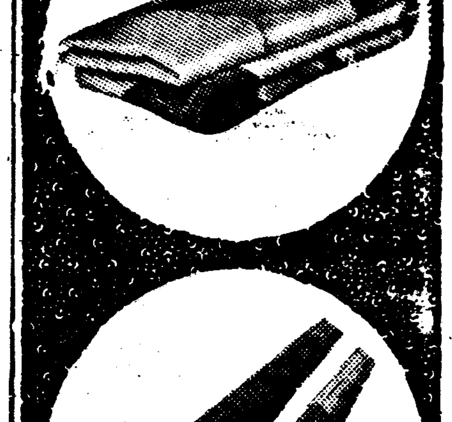
◎壹等賞 (貳千名樣)
(イ)新型腕時計 壹個
(ロ)新柄御召銘仙 壹反
(ハ)銘仙座·布團 壹組
(ニ)寶石入金指輪 壹個
(ホ)輕便卓上ミシン 壹臺
(ヘ)羽二重掛布團 壹枚
(ト)茶簞笥 壹棹
(チ)流行型婦人絹洋傘 壹本
(リ)ボストンバッグ 壹個
(ヌ)羽二重片側帶 壹本
(ル)總桐用簞笥 壹棹
(ヲ)家庭用ハカリ 壹臺
(ワ)總桐文机 壹個
(カ)最新型置時計 壹個
(ヨ)婦人雜誌無料購讀券 (壹ケ年分)
(タ)晴雨兼用絹洋傘 壹本
(レ)極上安全剃刀 壹個
(ソ)豪華お化粧セット 壹組
(ツ)特製鏡台 壹臺
(ネ)オートマッサージ 壹個

◎貳等賞 (參千名樣) レート化粧料美麗詰合函 壹個
◎參等賞 (拾萬名樣) 携帶用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 (五〇〇萬名樣全部) 美麗世界十美人お化粧カード 壹枚 (御愛用賞は御買上の際、洩れなく進呈)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
平尾贊平商店 懸賞係

御販賣店各位
御參加御申込を

懸賞大賣出しに際し熱誠なる御援助御協力を願致します。レートクレームお買上の際の空箱寫案引換に添上る愛用賞は出賣參加お申込次第(五十枚宛)御送附申上ます故貴店名住所明記の上即刻本舖へお申込下さい等案多數お集めの御希望有利な優待方法が設けて御座います

가을이야…… 美肌回復에 絶好한機會

レートクレーム의優秀한有効成分은 빠르면 곳슬슬녹아드러、暑熱에疲勞한살결을 단번에 甦生식혀 以下에作用으로 모르는듯 젊어집니다

整肌 作用
皮膚의新陳代謝를조케하고 벗거름거친살을淸白하게解消한다 여드름、부룸、거미等도씨슨듯이一掃된다

榮養 效果
細胞에生生한活力을주어서 살결의組織을根本으로뜨데 곳처잔주름弛緩을除去하고 彈力잇는柔軟滑澤한살결을 만든다

白粉下
거친살、脂肪의분을不拘하고누구나粉白粉의먹음이華美하야、終日토록밀리지안는化粧을生生하게오래가질수잇다

レートクレーム
레-트크레-무

營農法改革에 새 苦憫

冷害防止策으로 燕麥減段은 有事之秋馬糧에 威脅이라고

軍部에서 考慮를 希望

【咸興】 함남고지대령해(冷害)방지의 유일책으로 연맥(燕麥)의 작부반별을 격감시키기로 하얏다함은 긔보하비어니와 이에대하야 돌연 군부(軍部)에서 매년이상삼만관의 군마량(軍馬糧)으로 소용되는것이 수확부족으로 공급(供給)할수업지안흘가 그래고 일조유사한때에는 사백만관이상을 소용하게될터인대 연맥의 작부면적을 격감시키면 마량(馬糧)을 어데케할가하는 점도 고려하야 달라는희망을 말하고잇서 도당국은 [illegible] 의견신을 사고잇다

그러나 도당국에서는 면적은 감소되야도 집약적(集約的)농법으로 수확을 증가식힐수잇스며 도한비상시에는 식용여배이라도 모다 공출하고서 식용은 잡곡으로 대용할수잇다고 말하는데 여하튼귀추가 주목된다고한다

南旨發展을目標 繁榮會를組織

【釜山】 락동강연안에 잇는 남지(南旨)는 대구(大邱) 마산(馬山) 간 교통의 요충지대로 비옥한 부근평야에서 무진장사롭의 한 농산물집산지로 유명하든중 변부변 상업적으로 엄습하는 홍수에 만흔피해를 저자당함으로 지방유지들의 부단한 활동과 당국에대한 희망을비려고 잇든중 지난 칠일오전십시부터 남지소학교에서 유지삼십여명의 출석으로 번영회를 조직하고 수해영구구제책을 토의햇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갓다한다

一、南旨馬山間洛東江改水路問題

一、邱馬鐵道聯絡設問題其他

小賣商의機關 共同會社發起

【會寧】 회녕본정통(本町通)에사무소를둔 공제회(共濟會)는 작년십일월에비로소 읍회의원 리홍긔(李鴻基)씨와 회중의원장(會寧醫院長)리홍익(李鴻翼)씨등의 발긔로 소매상의편리긔관으로 회녕공동무역주식회사(會寧共同貿易株式會社)창립을 준비중인데 그 내용은 가입회원은 공동무역주식회사 긔본금으로 매일십전이상일원이하를 납입하되 그일주구(一株口)는 삼백만긔로되엿고 그중수입본은 식산은행에다가저 축적립하되 가입회원이만하 매월 적립금이 일만오천원이 불입되는시에는 즉시회사를 창립하기로하는바 회사긔본금은 십만원예상으로된것으로서 만일변이 경과한 현재에 벌서 긔본공동어구가 구실여구에 달하며 저금은현재에 일천팔백여원이되엿다는바 일반은 그회사창립되기를 기대하고잇다한다

下水溝施設로 市民宿望貫徹

【海州】 [illegible] 해주군 [illegible] 일부하여 용피하든터인데 대거항부 공제사의 경주하후로 매년 발전을 가하야 금일에는 실로 지방도시를 형성하얏스나 시가만은 구시가대로 손을 대이지아니하얏스므로 사시를 물론하고 소량의 비만 나려도 로면은 정부 니혜화하야 교통이 곤난하므로 시민은 이 시설을 면당국에 다년 요구하여왓스나 실현이되지못하야 유감으로 지내든중 금번녀를 신임면장 강홍(姜洪[illegible])씨는 이를 대다유감으로 역이여 착인제일회치첨사로 이에 착수하야 방금 공사가 착착진행중이므로 시민의 변래숙망은 이로써 관철하엿다 한다

사람죽이는名藥?

警察에서는原因을調査

【[illegible]】 약으로 병을곳칠수잇는반면에 약으로사람을 죽이는 례가 종종잇다 지난 [illegible] 배찬(金[illegible])(二○)은 그의처 오선비(吳仙비)(二○)와가티 수변전부터 악성성병(性病)에 걸리여 고통하든중 부내지산리(芝山里) 황하윤(黃河[illegible])(六○)이란 노인에게 명약이잇다는소문을듯고 지난달 그에게서 약을 어더먹엇든바 하지간도못되여 그의처 오선비는죽어버렷다고한다 이소식을드른진남포경찰서에서는 그약에이상한 점이잇다고해서 사체는해부키로하고 방금죽은원인을 조사중이라는비 일반은 약을짓는 대가하주의할바라고한다

列車를組成타가 驛手一名慘死

【[illegible]】 지난팔일오전여섯시 [illegible] 경부선조치원역에서 제일호로출발되는 출북선(忠北線)열차를 조성(組成)하는 역수(驛手)정구준(井口俊)(二[illegible])이가 련결시기라는차와 충돌되야 두부가 파상하야 즉사하엿는데 정구준은 남의외아들로서 부모를 일즉여이고 독신생활하든중 그와가티 참사한것이라한다

有志의努力으로 靈山農補校認可

【靈山】 교육열이 고도에 달한 령산에 [illegible] 교육기관증이 보잘것업든데 령산면장 하지호(河之浩)씨외 몃몃 유지의 [illegible] 로하야 지방의사들은 얼마전부터 령산에서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를 설치할것을 계획하고 부단의 노력을 하여오든결과 수일전 당국에서 인가되엇스므로 불원간 교사건축에착수하려라고한다

(盈德)에서는 시가와 면 [illegible] 천의 방지를 리유로서 가둥(街燈)을 설치해달라고 부당국에진정한바잇섯다 그러나 부당국으로서는 지정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아직시기가 일으다고 해서하고 압으로 정비에 여유가잇슬때에 가둥시설을할의사를 가지고잇다는형편이라 리민들의 활동이 [illegible] 이필요하다고한다

工費廿萬圓으로 大橋梁架設計畫

延長이二百餘米에幅은六米突

道土木課에서設計中

【新義州】 이번신의주 강계연(江界邑)을 련락할 강계읍(江界邑)을 련락하는 교량(橋梁)가설은 강계읍민의 열렬한요망으로 래년예산편성기를 압두고 맹렬한운동을 개시하야왓는데 도에서도 지방과에서 공사설계중에잇다는데 설계에의하면 기라 이백삽십미돌"널비"미돌"로 총공비 약이십만원에달하는 공사로 제일기(第一期)계획이끗나면 시제이긔(第二期)로 일긔계획의교량"널비"전부를차도(車道)로하고 량엽에 널비 이미돌의 인도교(人道橋)를 가설하도록 설계중인데 예산만되면 곳공사에 착수할예정이라한다

新里、西城廟市街 街燈施設陳情

【平壤】 평양의 발전은 시내보다 외곽지대(外廓地帶)가더욱팔목할바잇서서 인구의밀도는"초스피-드"로 증가하고 잇는데 그중에서도 동안(東岸)의 신리(新里)와서부서성리(西城里)가려 옥발전성이 급격히전개되고 잇다 그런데 신리 서성리 두려[illegible]

昌城西城橋改修

【昌城】 평북창성군 창주면(昌洲面)서성교(西城橋)는 근년에와서는 수개소가 파손되야 교통상위험이 적지안흠으로 박급개수공사에 착수하엿다고한다

暴騰!또暴騰! 開城의白菜價格

例年보다二三倍의暴騰

【開城】 우때의 서리후에 매일 올르든 김치는 장만해야하겟고 배추갑은 례년보다 이、삼배나 비싸서 요지음 개성부녀들은 김장걱정으로 가슴을태우고잇다 현재 남대문통 도교시장(都橋市場)과북본동 당교시장(堂橋市場)의 배추갑은 [illegible] 면 매매되는것이 이곳서는 칠성서 한폭이에 보통 삽사전이엿든것이 심전식、밧든 협편인데 이것도 경거장에 내리는마다 협편인데 경매가되는 협편이라하니 배추소송하여 보통한폭이에 실팔전이 수산지로 유명한 개성이금년은기장공황에 여지업시 위협을밧고 잇는중이다

失職青年울리는 幽靈會社員打盡

債券詐欺販賣로二萬餘圓騙取

七名釜山署에서取調

【釜山】 지난칠월오경부터시경부산경찰서에서는 형사오명이 자동차를모라 부내대창정(大倉町)길전(吉田)빌딩삼층에잇는 제국상사주식회사선만지부(帝國商事會社鮮滿支部)를 습격하고지부장이하사원동칠명을 검거하야다가 방금엄중히 취조를 하는중이데 그내용을 탐문하건대 그들은약사개월전부터 엉터리회사인 제국상사회사선만지부란 간판을걸고 일적에을고잇는 농촌의지식계급층을 속이여서 사원에채용한다고 그신원보증금이란 명목하에 한사람에게 일백이십원내지 오십여원식을 밧고서 그들로하여곰 권업은행 발행의 권업채권을 판매케하얏는데 그판매방법은 권업채권의 실물은주지안코 단지 예약증서를 주고서 그보증금으로 오백원액면채권에 약에 팔십원식수취하야서 조선각지에서 약이만오천여원을 사취한것이 발로된것이라한다

本社宣川支局後援 全朝鮮珠算競技 廿三日宣川會館에서

【宣川】 선천회관(宣川會館)주최 본보 선천지국 후원으로 제일회 전조선 개인 주산경기(第一回全朝鮮個人珠算競技) 대회를 오는 이십삼일 오후일시 당지 선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되엇는바 아직 선천에 잇서서 주산 경기도 처음이려니와 전조선적회합에 처음이니만치 당일의 큰수확과성황을 예기하고잇스며 경기순서는아래와갓다

一、本大會는 初等學生部 中等學生部及 一般部의 三部로分하야 競技를行함

1、初等學生部

參加資格 初等學校在學者로學校長의 證明이有한者

競技種目 讀上算（加減五桁以內）

2、中等學生部

參加資格 中等學校在學者로學校長의 證明이 有한者

競技種目＝讀上算 見取算 乘算 除算

3、一般部

參加資格＝一般男女

競技種目＝讀上算 見取算 乘算 除算 傳票算

二、各部의 競技는 三回以上으로함

三、各部의 優勝者에게는 優勝盃及 賞盃를 授與함

三、優勝者의 次點者 一名에게는 賞品을 授與함

四、算盤은 各其 自己의것을 使用하되 廿一桁以上의것을 要함

五、申込期日은 十一月廿日午後八時까지

六、參加金 初等部十錢 中等部廿錢 一般部卅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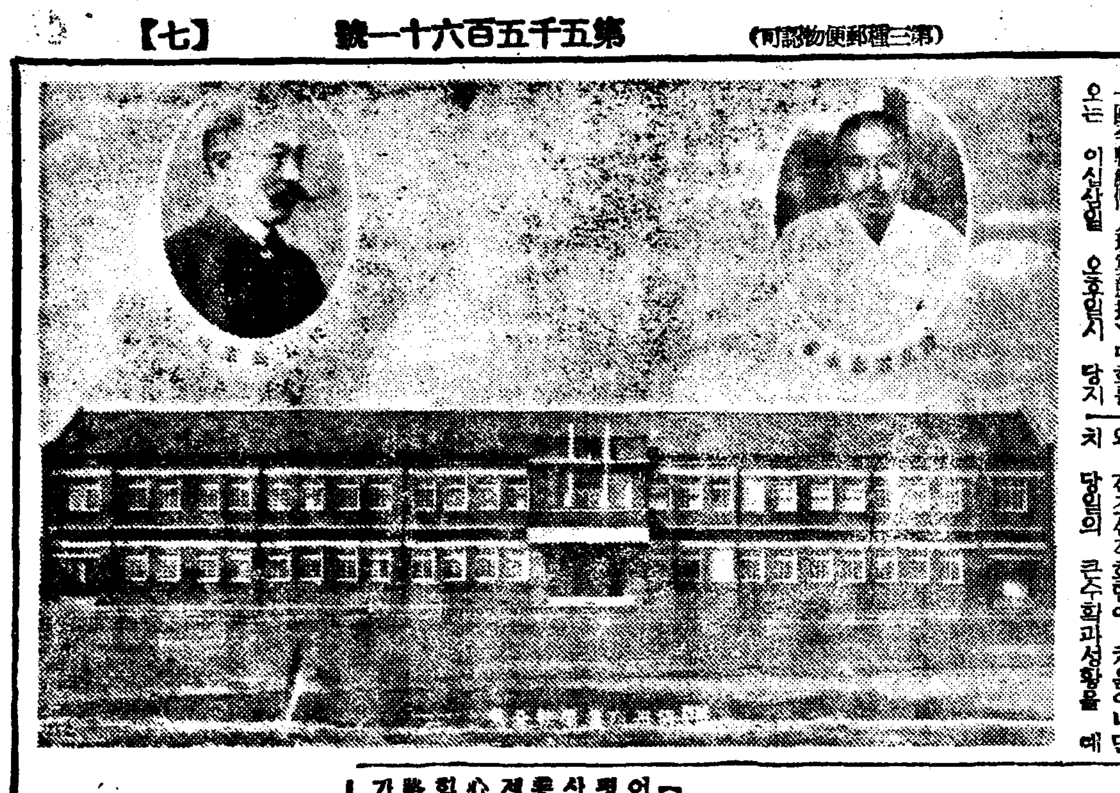
債務償還을憑藉 共有土地를抵當

期米에失敗하고高飛遠走 龜城署共犯一名逮捕

【龜城】 박천군양가면신대동(博川郡兩嘉面新垈洞)김이갑(金履甲)은 금년팔월경에 김종성(金鍾聲)외륙명의 공유토지팔만평을 경성모은행에 저당하여가지고 공동의채무를 변상한다고 사칭하고 경성동아증권주식회사에 일만오천원으로 저당하여 그돈을가지고 긔미를하다가 그만실패되여 대손실을 보고남은돈 천원까지 휘령하여가지고 멀리만주로 고비원주하고마럿다 귀성경찰서에서는 공동범인장원흠(張元欽)이란 유력자를 소환인치하고 임사법주임(林司法主任)이엄중한취조를하고잇다한다

平壤의初雪

【平壤】 례동이지난후 겨우온 급히 떠러지평양의 긔온은 매일 천지온도려하(零下)삼、사도를 오르나리고잇는데 팔일오후네시부터 평양일대에는 평양처음눈(初雪)이한참내려서 겨울소식을 각으로 재촉햇다



淸州商業學校……落成式大盛況

【淸州】 청주읍 김영근(金永根)씨의 열성으로 제작년에창립된재단법인청주상업학교의 그간교사를신축중이든바 얼마전에 락성되여 지난팔일에 락성식을거행하엿는데 교사설계(校舍設計)도 [illegible] 한다

◇寫眞…同校舍全景과設立者金永根氏(右)와校長[illegible]氏(左)

平壤의 中心地는 西門通의 十字路

平商生의 興味잇는 調査統計

交通量으로 본 平壤打診

【平壤】 평양시가 전통유동하여어데가제일사람의통행이만흔가를 평양상업학교(平商)생도들이 조사한결과 다음과가튼 흥미잇는통계가발표되여 평양의교통량이 제일만흔 평양시가의 중심부(中心部)는 서문통(西門通)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압 십자로(十字路)로 판명되엿고 따라서 구시가가 신시가보다 훨신교통량이 복잡한것으로 알리어젓다 서문통십자로(西門通十字路)는 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의 일곱시간동안에 일만여명으로 한시간에평균 일천사백이십팔명이 통행하고잇고 오전아홉시전과 오후네시이후의 통행자를가산한다면 이만명을돌파할것이어서 동경은좌(東京銀座)의삼만에 얼마못하지안타 그다음은 역시구시가의대동문(大同門)정류소부근으로 팔천육백인에달하여 여기도얼마나 복잡한지 짐작할수잇다 신시가측으로는 삼중정(三中井)압인데 오천팔백칠십삼명 대화정(大和町) 화정사(華頂寺)압이 오천육백팔십인으로 구시가에비하면 문제가안된다

통행인을 성별(性別)로보면 구시가에는녀자가삼십륙(三六、[illegible])남자륙십삼(六三、[illegible])비례요신시가는 십사(大四)[illegible] 남자륙십사퍼센트이다 이상의통계로보아 교통량이 신시가보다 구시가에 도로폭이 필요함을 알수잇는데 평양부당국에서는 구시가의 도로를 확장하야 교통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야 [illegible]

在日本朝鮮基督敎 全體聯盟加盟

【大阪】 재일본조선기독교회(在日本朝鮮基督敎會)는 일본내지에서만여명의 교도를 옹호하고 유양육사업과 조선인자별운동에노력하여오는바 총번동교대회에상국 회의에서는 일본기독교(日本基督敎)의 이십여개단체가가맹한 동경시신정구금정에잇는 일본기독교련맹(日本基督敎聯盟)에 가맹하기로 결의하고 일제가맹수속을 동련맹에 제출한후 동련맹의인가를얻어 동경련맹회관에서열리는 제십사회련맹총회(第十四回聯盟總會)에 재일본조선기독교대표로 명고옥에잇는 박상동(朴尙東)씨를 파견하기로되엿다고한다

하로밥분移民群

當局의斡旋도기다릴사이업서

平南山地帶로大量移動

【平壤】 상남에주면어 평남고지대(高地帶)인 녕원(寧遠)양덕(陽德)덕천(德川)맹산(孟山)등에군으로 이주해오기로 된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발서부터 이주민은 모혀들기시작하얏다 이계획은 총독부에서 세운계획으로 자유이민들은 이계획의 구체안이 서기도전에 [illegible] 작하여 가장살림을 휴대한상남리재민들이 평양역을 통과하여 산간군부에 향하고잇서 주목할현상인데 가는곳은 양덕 맹산 녕원 덕천방면이라한다 평원선(平元線)이 개통되여서부터 상남이주민의수는 더욱증가하고 잇는 현상이다

畜牛感冒猖獗 盈德郡內에

【盈德】 경북영덕군내에는 금년여름장마를지난후 긔후불순함에따라 인축에감종질병도류행하거니와 특히가축중수(牛)감긔가 대창궐하야 신음하는소가 수천여두에달하엿든바 군면 지도당국과 농회축산계(畜産係)원의 철저한 방역으로근근지식상태에잇다고한다

地方人事

▲皆木政右衛門氏(宣川警察署長) 着任人事次 本社宣川支局來訪

▲林常吉氏(宣川稅務署長)着任人事次 同上

▲兒玉榮藏氏（前馬山稅務署間稅課長）大邱稅務監督局間稅課長榮轉人事次 本社馬山支局來訪

▲白南杓(前馬山稅務署)晋州稅務署轉勤人事次 同上

平壤

朴泰俊作品發表會

▲時日 十一月十三日午後七時

▲場所 崇專本館講堂

◇主催 崇專學生基督音樂部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宣川

全朝鮮珠算競技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午後一時

▲場所 宣川會館會議室

◇主催 宣川會館

◇後援 朝鮮日報社宣川支局

愛慾의彼岸 【146】

李光洙 作　金康登 畫

「그래、그럼 소리 하래 어 아니 밥수술에 와닷다이냐」

거장로는 오주가 대답을 세도 엇시 돌아첫다。

「그 게집이 을만한 게집가트면야 ─선한 게집 가트면야 제가 어럼 말근을 엿슬 리가 잇서요? 그러나 이문힘이란 게집은 제가 혜련씨를 생각한다 해서 그것을 때리고 저를 유혹해서 하로人밤 동침까지하고 시골 가서 살 약속까지 하고는 저를 배반한 게집이 올시다。아모리 세상이 말세가 되엿기로 그러한 게집이 친부모와 가티 뫼시든 아저씨와 혼인을 한다는데、그것을 몰랏스면 이어니와 알고도 그냥 둘수야 잇슴니까。」

「그럼 소리 말어! 다시 내 압헤서 그럼 소리 헐테나? 어며서。뒤 방으로 네 잔뻐가 죽엇다구 그럼 내숑스러운 생각을 품고、어、이 놈! 갑히 내 압해서 그럼 소리를 해! 썩 물러가거라、고이한놈 가트니」

하고 거장로는 눈을 부릅뜨고 벌벌 떨엇다。

「아저씨。아모리 애욕에 눈이 어두우섯기로 자식가튼놈의 게집을 빼아스시는 법이야 잇슴니까」

「이놈이 그래도 안 물러나고 그런 아가리를 놀려? 오 문임이년이 어될 나가서 늦도록 아니 들어오더니 이놈 네가후려내어서 빼어돌렷구나。네 이놈!」

거장로의 입에는 거픔이 품렷다。

은주는 어이업는듯이 빙그래우섯다。

「이놈 웃기는 왜 웃어? 이놈 불상하다고 귀여 주어더니 은혜를 혜련이를 꼬이고。그래 혜련이가 만만하게 네작이 될듯실호냐。유자부족해서 또 문임이를 호려냇다? 이놈 너도 콩밥 먹을줄 몰라?」

거장로는 펄펄 뛴다。

혜련은 벌벌 떨고 섯다。

「콩밥도 먹을 새가 업슬것 갓슴니다。」

「무어? 어쩌고 어째?」

은주는 저고리 속주머니에서 피무든 칼을 꺼내어서 거장로의 압에 노흐며、

「아자씨。두 마음 먹은 음탕하고 요망한 게집 이문힘은 이 칼에죽어서 벌서 차듸하게 식어버렷습니다。」

「무어? 무어! 무어!」

하고 거장로는 바람이 날듯이 몸을 두리둘러면 한다。─

「문힘이가 죽엇서요!」

문빗게 엿듯고 잇든 혜련이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네 문힘이가 죽엇서요。제가 바늘 최강슬 내 손에서 바닷슴니다。나도 죽을것이지마는 문힘의 죄상을 정하여 공개해서 세상에 두 빠을 먹은 게집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고야 죽으랍니다。아자씨、어 늙은 아자씨 온혜를 이러케 갑헛슴니다。혜련씨。나는 차디찬 이 세상에서혼저 혜련씨를 가슴에 그리고 살아가라고 혜겨마는 문힘이란 게집은 이것까지도 깨트려주엇슴니다。인제는 나 혼자 마음속으로도 혜련씨를 사모할 자격을 일허버렷슴니다。인제 나는 더 살 필요도 업스리만치 다 살앗서요。[illegible] 나는 세상에서 두 마음 품은 계집 한나를 죽여버린 살인죄인입니다。나는 이 칼을가지고 이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현하겟습니다。상회는 문서는 분명히 다 닭아노앗슴니다。돈 한 푼、물건 하나 축난것은 업스리라고 밋습니다。아저씨 부대 안녕히 계서요。혜련씨、이것이 마즈막 만남입니다」

이러케 말하고는 은주는 후혹 느껴 울엇다。거장로는 어안이 벙벙하야 눈만크게 뜨고 잇섯다。

『혜련씨』

하고 은주는 일어나면서 불럿다。

『네!』

하고 혜련도 눈물에 저즌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앗다。

은주는 혜련을 보고 무슨 말을 할듯할듯하더니 꿀꺽 참는 표정을 하고는、

『혜련씨 나와 대문 거세요』

하고는 아까 올 때와 가튼 괴운은 더 업서지고 비틀비틀 고개도 못 거누면서 대문으로 나갓다。혜련은 은주의뒤를 따라나갓다。은주는 대문을 나서서 한번더 뒤를 돌아보고 술취한 사람모양으로 모자를 벗어 흔들고 그리고는 휘파람으 불면서 어두움人속으로 슬어저 버리고말앗다。

『아아 모도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혜련은 대문을 잡그기도 이저버리고 대문 빗장에 몸싯고 쓰러진다。따따따하는 야경의 목때 소리가 지나간다。

味の素 아지노미

현행에도「아지노미」를 가지고가서 음식맛을 엇지안습니다

구루타민산나토리움 포함량 在來品 百分의七八・五一 아지노미 百分의九四・五七

東京陸軍海軍水交社御用

全朝鮮一手販賣店・京城・平壤・和信 全朝鮮和信連鎖店

和

業工庭家은곳

信用잇는最高會社意氣잇는大事業進出

第一 工業의生活은우리의日常生活上消費되는必要品을...서 製造하는 工業이 家庭工業이올시다

第二 參拾萬圓

內外貿易 株式會社

小兒內科 趙漢英醫院 京城府 [illegible]

機穀脫用力動一마-얌

朝鮮獨占販賣 新製品發賣

米麥兼用

◉能率絶大 ◉構造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總發賣元 京城驛前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淋疾이거든、藥物療法에 失敗헤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府古市町

發賣元 京城府 平山幸運堂 振替京城一三八六六番 電話光化門二一九一番

(領布代一圓九十錢 各地送料二十錢) 特別廉價提供 其他六十錢

經濟解說

石炭液化事業

石油重要性과 그需給

● 李健鍾

이世上에서 生을 享受하야 死에 至하기까지 直接間接으로 石油를 떠나서는 生活할수 업는 近代文明의 必要不可缺한것인 石油製品(揮發油、燈油、機械油等)은 產業上、軍事上 重要한 에너-기源인바 日本의 石油需給을 보면 昭和十年度에 잇어서 全國(朝鮮臺灣을 包含한)民間石油消費高는 約九十七百萬圓(一圓○九·五까론)으로 九年度에 比하야 一割三分七厘增加이나 同年度의 石油國產高(北樺太及滿洲產을 除함)는 겨우八百九十萬圓에 不過하다 그런으로 昨年度의 石油輸入高는 一億七千萬圓을 突破하고 輸入品中 第四位에 達하얏다 即棉花、羊毛、鐵에 다음가는 巨額의 輸入을 外國으로부터 求하야 겨우 需要를 充足식히고잇는터로 이제 統計別로 石油의 需給關係를 昭和九、十兩年에 例를 들어보면 아래와갓다(單位千瓩、民間統計에 依함)

	昭和十年	昭和九年
◆揮發油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內譯 國產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輸入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入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出高	[illegible]	[illegible]
國內供給高	[illegible]	[illegible]
◆燈油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內譯 國產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輸入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入高	[illegible]	[illegible]
國內供給高	[illegible]	[illegible]
◆輕油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內譯 國產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輸入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機械油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內譯 國產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輸入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入高	[illegible]	[illegible]
國內供給高	[illegible]	[illegible]
◆重油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內譯 國產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輸入原油精製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入高	[illegible]	[illegible]
製品輸出高	[illegible]	[illegible]
國內供給高	[illegible]	[illegible]

×

重油는 石油需要總 ... 平均 九割三分四厘나 海外로부터 供給받고잇는터로 萬一 國交斷絶等事態에 遭遇하야 原油供給이 杜絶되면 軍艦、飛行機、自動車는 一時에 動치못할것이나 天然石油가 업는대신에 人造石油라도 만들어야할것으로 이것이 곳 石炭液化를 國策으로 떠드는 所以이다。元來 石油가업는 日本뿐아니라 世界의 石油王國이라할 米國도 數十年後에는 石油枯渴時代로 되리라함으로 世界는 石炭時代에서 石油時代를 거처 石炭液化時代로 變하야서 天然資源인 石炭으로부터 石油를 製造함이 全世界의 新要求가 되리라이다。最近東京電燈에 依하면 ... 燃料國策의 見地上 大規模의 石炭液化에 依한 人造石油工業을 確立코저 資本金一億圓(政府、民間各五千萬圓式)의 半官半民會社를 設立할 具體案이 成案되엇다 傳한다。그內容은 政府는 三個年에 五千萬圓을 拂込하고 民間側出資에는 年五分의 配當을 保障하며 新會社는 資本金 倍額의(二億圓)社債를 發行할수잇게하야 第一期計畫으로 年百萬噸의 生產을 圖하되 工場은 九州北海道、常磐、宇部의 四處에 設置하리라는 것이다。

×

그런데 이石炭液化計畫案에 依하면 人造石油一噸을 生產함에는 石炭五噸을 要함으로 年產百萬噸의 石油生產에는 年五百萬噸에 達하는 石炭은 年五百萬噸의 需要가 增加한다 自然增加 年二百五十萬噸以外에 新規原料石炭의 增產이 必要하다인바 前記四處의 未開發炭田과 封鎖炭田을 採掘하면 年五百萬噸의 需要增加로는 石炭飢饉이오로보아 供給不足은 업스리라하나 第二次 第三次擴張計畫이 必要하면 日本內地炭礦은 同時에 將來壽命이 問題가되는터로 樺太와 共히 朝鮮의 炭田이 囑望되는터이데 原料國策上 朝鮮石炭의 資源을 말하기前에 먼저 石油人造方法에 對하야 잠깐 알어보자。

—(계속)—

(筆者은 埼玉縣川口市 商工省燃料研究所)

朝鮮米取引所 一元化식힐 意向

日本內地에 順應하야

七日開催한 全朝鮮米取聯總會에서는 既報한 附議後 米穀政策과 取引所政策의 今後强化에 對處할 朝鮮內米取의 對策에關한 懇談에入하야 商工課의兩信事務官으로부터 總督府의 方針을 開陳하고 朝鮮으로서는 日本內地의 推移를 靜觀하야 그決定을기다려 善處하자고 決定하야 具體的으로는 아모 決定이업섯스나 當局으로서는 將來 全朝鮮一取引所로 統制할意向을가진것이 明白히되엿다

受渡制度 大改正決定

全朝鮮取引所聯合會는 七日朝取樓上에서 開催하고

一、受渡米容量統一에 關한件

受渡米의 容量과 重量併用에 關한件

을 附議하얏는데 劈頭 石塚國檢所長 岡信商工課事務官으로부터 總督府側의 右에 對한 方針意向을 明白히하얏다。

容量의 統一은 조흔일이나 業務規定에 이것을 明記하야 規定할 境遇는 日本內地米取의 受渡時 朝鮮米의 口桝을 適用하야 取引上에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잇다 從하야 容量은 別로 規定치안코 受渡制度의 改正을 圖함이 必要하다 即 總督府로서는

一、受渡米는 반듯이 國營檢査를 通過하는것이므로 그合格米는 受渡米로서 아모 相關이업다

二、但 受渡米는 倉庫米가안이 證劵受渡를 行하는것이므로 이때에는 檢査所에서 適宜 無料로 倉庫米를 點檢할것

三、또 倉庫米는 米倉에서 責任으로써 保管하는것이므로 그것에 對한 容量의 念慮는업다

四、但 個個의 受渡에 關한紛議의 境遇에는 따로 考慮할것

따라서 總督府의 方針을 諒解하고 各米取의 受渡制度에 大改正을 加하기로되어 右改正의 細目具體案에 對해서는 總督府에서 原案을 作成하고 다시 取引所聯合會에 附議하야 決定하기로되엿다

貿易振興에 外事課進出

總督府外事課에서는 伸長하는 貿易에順應하야 海外商圈의 擴張에 本格的으로 進出키로 되어 課內에 通商係를 新設하고 通商의 斡旋紹介에 努力케되엇다 相川外事課長은 九日朝入京한 宇佐美奉天、佐藤哈爾賓兩總領事를 招待하고 朝鮮産品의對滿貿易進展策에 對하야 懇談하얏는데 特히朝滿間의 貿易은朝鮮에잇서서 對外貿易中 가장重要한地位에잇슴으로明年度부터奉天及天津에 派遣員을 常置하고 朝滿及北中의 貿易事務斡旋에萬全을 期하고저하는 總督府側의 計劃도 披瀝하고 援助를 懇談하얏다 外事課에서는 近間在京外交團을 招待하야 懇談을 開催할터로 相川外事課長은 二十日頃歸任하는 殖産局長과 協議한後 渡東하야 外務省通商局과 緊密한 連絡을取하고잇는 한便 南中과 南洋方面에 外務省在外員을 囑託으로서 朝鮮의 對外貿易에 關한 調査 紹介斡旋事務를 取할 方針이라한다

惠山鎭、滿浦鎭에 商銀支店申請

商銀에서는 今春來 積極的支店網의 擴充을 進하고 吉州 三千浦等의 各支店을 新設하얏는데 更히 北朝鮮時代에 備하야 惠山鎭과 滿浦鎭에 各地 支店設置를 當局에 申請키로되엿다 來年初總會에 附議決定할터인데 이에 依하야 商銀의 第一期支店網擴充計劃은 完了될 豫定이라한다。

重要肥料統制令

硫安 各驛渡價格統一 三圓卅錢中心公定

日本內地의 重要肥料統制法은 施行規則이 十日前後公布되고 十五日實施될豫定인데 朝鮮에서는 本令의公布와 府令에依한 施行規則은 目下準備中으로 重要肥料統制令의 公布도 日本內地의實施期보다 幾分遲延될모양이라한다 그리고同令의骨子는 目下研究中으로 그中心點은如左하다한다

一、硫安의公定市勢를 肥料商은 三圓五十錢(一叺)으로 上下十五錢開를主張하고 總督府에서는三圓三十錢上下十錢開를 妥當하다하고잇다

一、硫安의 公定市勢를 驛渡價格과 同一케할것 그리고 右에就하야 肥料商은 三圓五十錢을主張하고 總督府는 三圓三十錢을 妥當하다하고잇다

一、大量取引의 境遇는 更히 減價할것

一、各月渡金利倉敷는 一個月一叺三錢의 開를둔다

等에就하야 愼重硏究中이라한다

鮮滿拓殖職制認可

鮮滿拓殖의 新職制는 九日總督府로부터 認可指令에 接하얏슴으로 會社에서도 同日付課長以下의 辭令을發表하얏는데 課制는如左하다

庶務課長 中津川源吾(京畿小作官)

監理課長 庶務課長兼任

金融課長 堤理事兼任

產業課長 鈴木慶光

移民課長 未定(前咸北農務課長)

經理課長 大野幹平(前慶南社會課長)

監理課는 直系、傍系會社를 監理하는것이오 事業管理를하리라 한다

移入稅漸減

撤廢키로 決定

【東京電話】朝鮮에서는 現在日本內地로부터 移入하는 諸織物及酒類、糖含有飲料에 對하야 移入稅를 賦課하고잇는데 最近一個年의移入稅高는 約三百五十五萬圓에 達하야 朝鮮總督府에서는 前年부터 이의撤廢에關하야 硏究中이엿든데 昭和十二年度부터 漸次撤廢할方針을 決定하고 拓務省과協議한結果 昭和十二年度부터 實施하는 朝鮮의增稅에關하야 이것을 順次로 漸減的으로 撤廢할 方針을決定하얏다 그리고 具體的實方針에 關하야는 增稅方針과 함께 決定하기로되엿다。

[illegible]地、[illegible]야 朝鮮間에移入稅라는것은 相似한것이 尙今存在하는것은 朝鮮合併當時 朝鮮의財政的見地에서 收入을目的으로하고 日本內地와의間에 移入稅를認定하얏다가 大正九年八月까지의 十年만으로 撤廢할方針이엿는데 收入主義의見地에서 變遷하야 財源發見의目的으로 一部殘存하야 今日에至한것이다 今回 此移入稅撤廢를 實行할計劃에잇서서 大槪昭和十二年度에 우선三十%파-센트로 輕減하고 以後十六年까지 五個年間에 全部撤廢할方法을 取하고저 具體案을 考究中이라한다

朝鮮米二回豫想

十一日或十二日正午 發表될모양이라고

朝鮮의 第二回收穫豫想高는 十一月一日現在로 實際作柄에 依한收穫高를 基準으로 計算하야 十日에 各道로부터 總督府米穀課에 打電키로되엇는데 發表는 十一日 或 느즈면 十二日正午頃될모양이다。그런데 二回豫想은 前부터 傳한바와가티 各地에 稻熱病의 被害가 深刻하야 前者의 風水害等과 모다 合하면 前年에 比하야 三割內外의 減收를 免치못하리라는 觀測이 有力하여 第二回豫想高는 舊方式에 依하면 一千三百石內外 新方式에 依하면 一千六百五十萬石內外가 아닌가보는便이 만타 大減收를보면 移出數量도 減하게될것이나 아무리적게본대도 六百萬石內外의 移出은잇슬것으로 日本內地의 豐作에 依한 自治管理實施說은 依然主唱될것으로보인다 그러케된다면 實施與否는 追後問題로하고라도 日本內地米가 逆으로 移入을보지못하게되는以上 朝鮮內의 今秋米界는 極히緊迫한 事勢에잇슬것으로보인다。

米穀低資月末受入

今年度의 米穀低利資金은 大體前年同樣三千萬圓으로 決定하고 今月中에 各融通機關에서 受入키로되엇다 配定은 未定이나 殖銀、東拓、朝銀、金融組合이 모다 大體前年同樣이오 金利도 前年同樣三厘로融通키로 되엇다한다

取引停止 (十一月五日)

▲布木商 京城府橋南町一四二番地 同益商店李益培 ▲高陽郡纛島面東纛島里三一二番地 武藤義正 ▲京城府黃金町三丁目 三三番地 姜信洪 ▲荒物日用雜貨商 京城府明治町二丁目四五番地 富茂橋本捌一

經濟寸鐵

○ 南朝鮮의 水田賣買가 旺盛하다고

○ 連年凶作한 反動이 올줄알엇더니 意外의일

○ 그러나 너무지나치게 빗내서 投資하기는 조심되는일

○ 特히 京城近郊의 土地熱은 脫線的임으로 金融界에서는 警戒氣分이라고

商況 (九日)

株式 環境良好 反撥

前場堅調 再昨前場에少康續에大引된東新은 百三十八圓八十錢으로 三十錢低로 寄付하고 日產八十三圓七十錢 鐘新百七十八圓丁 朝新三十五圓八十錢에各各 寄付한後 市勢는意外로强硬하야 東新百三十九圓五十錢에大引하얏다 日產八十四圓七十錢、鐘新百七十八圓七十錢에 各各大引되엇는데 當地大引後 東京東新이百四十圓四十錢에 大引되엇던만큼 引跡氣配는매우 頑强하엿다

▲東新 一三八(八〇寄) 一三九(五〇引)

後場反撥 後場은 東新百四十圓丁 日產八十四圓八十錢 鐘新百七十八圓七十錢等으로 反撥商狀이엇다

整理低도 一巡

前月末의 金融緊迫과 國債低에 端을發하고 政局不安에 警戒心을發하야 賣人氣가 擡頭한以來 玉整理的商狀을 繼續하여왓는데 意外로 賣偏的人氣에 比해서는 市勢는 떠러지지안코 도로혀 米國大統領選擧를 契機로 少康狀態를 보엿고 때마츰 日中交涉好轉說이 傳하고 反撥氣味를 보여 高等으로해서 今朝하는 東新이 百三十八圓八十錢에 寄付하엿다가 百三十九圓五十錢으로 올라와 단단한맛을 보여 上伸力을 包藏하고잇는것가튼 步調를 보이게되엿다 이것으로써 玉整理가 다끗낫다고 보는 財界의 基調나 株界에 大變動이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안코 政局도 漸次明朗化하엿으며 不安觀할것까지는 緩和되며 程度이며 이우에 日中交涉의 好轉說이 傳하는데잇서서는 前途는 樂觀하여도 相關업슬것이 아닌가? 더욱이나 軍需工業의 殷盛、生絲、米價等의 高價持續으로 購買力이 增進되어 各種產業部門도 好調인 實相을 보면 조금도 悲觀할것이 업다는 것이 强氣側의 主張이다。

前途樂觀視?

玉整理에 依한 反動도 이것으로서 끗내고 다시 上放氣味를 보이는 市勢自體의 强味는 可恐할바 가잇거니와 勿論이로서 곳前途를 그냥樂觀하는것도 早計이라 內外多事多難한 때이니만큼 어떠한 突發事件이 잇슬지도 모르므로 年末金融에 對해서도 念慮되는것이어서 事實이니 警戒는 勿論 緩和할 注目된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illegible] ▲도레미? 鑛業新 [illegible] ▲全羅 [illegible] ▲關東重工業 [illegible] ▲東洋? [illegible] ▲라사工業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필푸工業 [illegible] ▲東滿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取引高 一四(一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課稅率問題는 아직 不明이오 金融이 引弛할 模樣도 업스므로 新規買를 誘致하게되지안코 도리혀 高價待의 賣分費로 誘導되어 內國債는 四分、三分半共히 五錢乃至十錢 引弛하고 外國債도 米貨六分半一圓低、五分半一圓二十錢低를 告하고 佛貨도 二十錢低落되엇다

▲甲五分利 一〇〇·四四 ▲一回四分利 一〇〇·四〇 ▲二回四分利 一〇〇·九〇 ▲佛貨 一九五·二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illegible] △第三五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佛貨 [illegible] △米貨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illegible]

米期 買上好績

前場反撥 爆發

再昨後場阪地二十九圓六十一錢止와 共히二十七圓六十二錢에 軟弱히 寄付한當地는 前場은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六十八錢인 六丁反發하야 二十七圓七十七錢으로 寄付한後 ... 前場은 ... 高를 示하얏다

後場暴騰

後場은 二十七圓八十五錢인 六丁高로 始한後 三節九十四錢으로 結局七十九錢에 止하얏다

六感

株……整理가 完了되엇가치 도 안코면서 市勢는 又復反撥氣味▲이것을 底入市勢의 무서운點이라고도 할가▲大勢는 번히보이면서도 人氣의 傾向으로 不安이不去▲整理市勢一巡으로 보기에는 一株의 疑訝가 업는바아니나 이以上의 反動도 期待難▲東新의 무거운 取組는 念慮되지만 株界의 前途는 悲觀으로 對할수업는걸……

米……今回買上成績은意外로 良好하야 四十一萬餘石이 나되엿다 이點으로보면 政府의 大體方針이 高米價政策임을可知▲一時弱途에 빠저잇슨 當限은 失地를 回復되는 모양▲賣方派의 三木等一派와 九萬六千石의 解合을 하더니 廉의 松村과의 六萬石解合이 도 成立되엿다▲二次의 解合이 賣方의 要請?▲그래서 市勢는 解合後반드시올으고말엇다▲當限의 强硬함으로 先限도 도리혀 이 關係로 顯著히 强硬、第二回豫想發表는 도대如何?

市勢도堅調! 買上成績良好

一般米界의 注目을 끌던 政府米五十萬石買上은 一時成績이 不良하리라하야 再昨日後場은 懸念氣味를 醱表하얏스나 買上決定이 二十三百五十二石斗에 達하는 豫外의 好成績을 告하야 休日中의 氣配는 二、三十錢高를 報하엿스니 그런데 今朝에入하야 阪地當中은 十餘丁의 反高를 示하엿스나 先限은 僅히 六丁高로 初付後에는 俵當의 狀態를 呈하고 當地는 阪地보다 一層强化하야 當限은 約二十丁 中限은 十餘丁 先限은 十丁의 反高를 示하더니 阪地의 反押과 共히 幾分軟態에 傾하엿다 그러나 大體의 步調는 各地共히 滑落을 行하지못하고 그 低落의 形態가 活車하지못함을 보면 此는 一時的 現象으로 後日 反撥의 鍛鍊的 步調가 아닌가한다 第二回豫想發表를 압두고 減收說을 傳하는 今回買上成績의 良好함을보아서 政府의 方針이 米價釣上에重을置하는觀이 업지아니함으로 買方은 어데까지 前途高를期待하고잇다

阪當又復解合

解合後는또反撥

阪地當限二十九圓九十九錢에 萬六千石의 大解合을한 田中貞은 賣方의 要請에 應하기는 하엿스나 今後賣方이 渡米를 할는지 少毒도 漆色이 엇시 受米하려하는 자못頑强한 態度임으로 其後當限은 도리혀 昂騰하엿고 繼續하야 昨休日中에 買方田中貞의 又復解合이 成立되엿다는 情報가 잇슨後 今朝에 入하야 當限은 六萬石의 解合을 受하얏다 ... 先限은 休日中의 氣配와 別로 差가 업섯다

後場暴騰

後場은 二十七圓八十五錢인 六丁高로 始한後 三節九十四錢으로 結局七十九錢에 止하얏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買方 ◇賣方 [illegible]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圓)

	今日	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正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大阪 等白米 百斤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斤 [illegible] 一匁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	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ＦＡＱ	[illegible]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十一月七日

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九、四四八叭의 減退를 示하엿는데 在高內譯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五一三八叺(四斗入)▲白米一、一八八叭(五斗入)▲白米一、九八五石▲大麥(白)▲正租一、一九〇叭▲小麥四二二九六叭▲粉白米四五九叭(選穀)七〇〇俵▲粟一、二五一叺▲糯白米一、〇八〇(九)三三、三五俵▲外國米台安九八〇俵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話】今朝堂島의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米穀▲ 三木中東側 汐崎

買方=朝鮮側 東京側 米倉側

今日地正米

京城急騰

當用必需向의買進과 定期當限反撥을보고 氣配 三十錢高이엇다 ㊀三等 二九、一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 二一、五〇

仁川昂騰

日本內地朝鮮의 減收豫想과 買上好成績으로 定期上放을보고 產地賣惜傾向과함께 市勢는 一暴에 三十錢昂騰 이엇다 ㊀三等二九、一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二一、一五

釜山反撥

定期好調와 產地高로 市況은 一般權化하야 三十錢高唱이나 精米必需向과 多出側에서 잘 買進하야 市場은 極히 好況을 모하얏다 ㊀三等二九、五〇 四等二九、二〇 一等白米二一、六〇

大邱强調

買上好成績으로 阪神方面의 買物이 順調이며 氣勢하야 產地高를보고 市況은 極히 强調를 呈하고잇다 市勢는 二十錢高이엇다 ㊀三等二八、五五 四等二八、八 五 一等白米 一二、一五

群山續騰

正租出廻薄에加하야 買上好成績과 定期當限高에 人氣자못 昂揚하야 氣配는 二十錢續騰하엿스나 商談은 圓滑을 缺하고잇다 ㊀三等二九、一〇 四等二九、〇〇 一等白米 二一、五〇

木浦昂進

買上好評과 定期當限高에 買氣를刺戟하고 또 移出採算良好에 買物이 잘進捗되여 오랫만에 市況은活氣를보여 市勢도三十錢 昂進을告하엿다 ㊀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 一等白米 二一、〇〇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 米 仁川 光 金益證券株式會社 金益夏商店

仁川 期米 福 吉村取引店

仁川 期米 大 マルダイ トリヒキテン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料金先送要

金融 (九日)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七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七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塊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九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京城油價 [illegible]

◆京城砂糖 [illegible]

株式 (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株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九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商品 (九日)

◆大阪綿糸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치카코期麥 [illegible]

◆日本豪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圓)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正米現物 [illegible]

◆大阪期米賣買 [illegible]